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합니다.

제임스 김 목사

목차

서론	4
교회란?	6
교회다운 교회	15
참된 교회	19
안디옥 교회 (1)	25
안디옥 교회 (2)	32
저주를 받고 있는 교회	39
창녀와 같은 교회	42
스스로 무덤을 파는 교회	46
부패한 교회	50
지혜 있는 교회	53
성장하는 교회	59
교인 수만 점점 더 늘어나는 교회이면 되는 것일까요?	67
교회 안에 침투한 강도들	70
교회 안에서 다툼의 원인	72
교회의 분쟁 원인 (1)	75
교회의 분쟁 원인 (2)	77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79
주님은 그의 교회를 어떻게 강성케 하실까요?	85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	88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	93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	97
광야에서 은혜를 얻는 교회	102
주님께서 더하시는 교회	106
믿음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1)	109
믿음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2)	114

주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교회	119
주님이 건설치 아니하시는 교회	122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127
교회의 연합	140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144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이유	150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합니다.	156
우리 교회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까?	160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163
결론	167

서론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가 건강하면 되는 것인가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되는 것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한 교회”란 말이나 “행복한 교회”라는 말보다 “교회다운 교회”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교회가 너무나 교회답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저는 교회는 주님 중심된 교회가 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 중심된 교회는 주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에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온갖 죄악 된 일들이 만연하므로 교회다운 교회는 주님 중심된 교회가 되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 합니다.

교인 수만 점점 더 늘어가는 교회이면 되는 것일까요? 왜 교인 수가 늘어나면 날 수록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교회는 마치 창녀와 같이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하나님과 더불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정도로 우상숭배인 탐심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부패하였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쟁으로 인하여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그러한 모습을 보는 교회 밖에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비판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나요? 애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지 않나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마16:18)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교회 세우시는 일에 겸손히 동참해야 합니다. 동참하되 우리는 우리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행1:14).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2장)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2:14ff., 4:31). 그리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에
구원 받는 사람들을 더하실 것입니다(2:47).

교회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린도전서 1장 1-3절).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교회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보기에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과 최악 된 일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비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는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 말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고 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책망의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행2:37).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38절).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롬12:2).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다툼과 분쟁과 최악 된 일들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들 중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성경은 교회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고린도 도시에 관한 한 3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박윤선):

(1)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들을 통하여 무역이 성행하고 있

는 만큼 여러 다른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도 거기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 고린도 도시에는 애굽 우상을 위한 신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애굽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무역차로 이 항구에 오는 배들이 많이 있어서 우상을 수입시킨데 있습니다.

(3) 고린도 도시에는 무역이 성행되고 있었던 만큼, 부유층의 주민들이 많이 있는 동시에 많은 노예들과 가난한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극히 악하여 부패하고 있는 만큼, 음행하는 자를 가리켜 세칭 “고린도인”이라는 칭호를 줬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도시에 사도 바울은 제 2차 선교 여행 때인 약 주후 51년 말엽에 처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18개월 동안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행18:1-11). 그리고 바울은 필경 주후 53년경에 고린도를 떠나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 유하면서 주후 57년 봄에 본서를 저술하여 보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문안 인사를 보면 우리는 3 부분으로 윤곽(outline)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1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인(Writer)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 전서의 발신인 즉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소스데네”는 아마 바울의 비서(secretary)인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소스데네가 전에 고린도인 회당(the Corinthian synagogue)에 지도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맥아더).

둘째로, 2절을 보면 고린도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Recipient)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서 편지의 수신자는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각처에 퍼져 있는 기독신자들.

셋째로, 3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인사(Greetings)를 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인사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은혜”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God’s saving grace)를 가리키고 “평강”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영혼의 평안을 가리킵니다(맥아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 말씀 중심으로 고린도서 편지의 수신자들인 고린도 교회와 각처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한 3 가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과연 교회란 무엇인지 좀 더 분명히 알아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이고 또한 어떠한 교회가 돼야 하는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교훈대로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교회 및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빛을 발하는 승리 공동체가 되길 기원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한 3가지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란 “하나님의 교회”(The church of God)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요즘 이런 저런 대형 교회들의 안 좋은 소식을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듣다보면 웬

지 교회가 한 개인 담임 목사의 교회 같아 보이던지 아니면 장로님들의 교회 같아 보이던지 심지어 육신의 가족 식구들의 교회 같아 보입니다. 그 한 예로 지난 주 한 크리스천 웹사이트를 보니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형 교회가 파산하기 1년 전부터인가 원로 목사님이 가족들과 측근들 23명에 180만 불이 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인터넷). 또 다른 예는 얼마 전 (1월8일) 일어났던 애리조나 총격 사건으로 인하여 죽은 6명의 사람들 중 제일 나이가 어린 9살 난 크리스티나 그린 아이의 장례식(13일) 때 시위를 벌이겠다고 캔자스 주의 웨스트보로란 침례교회도 알고 보았더니 창설자 프래드 펄프스 목사와 그의 자녀, 후손들이 주축이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전에 이라크 전몰장병의 장례식에서 병사의 죽음을 환영한 시위를 벌였었는데 그 때 그들은 “죽은 병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증오한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고 2004년 미국 대선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존 에드워드 전 상원의원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에드워드 씨의 장례식에서도 “하나님, 유방암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인터넷). 이렇게 남의 장례식에서 “잘 죽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입니까? 오래 전 저희 교회 오셔서 부흥집회를 인도해 주신 미국인 선교사님이신 인도아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국에서 4대의 걸쳐 선교와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작년 1월 11일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교통사고로 숨지신 고 인도아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한국교회 안에는 인본주의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향기보다 우리 사람들의 죄악 된 썩은 냄새가 더 강하게 진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 했으면 “교회가기 싫은 77가지 이유”(저자: 이만재)라는 책까지 나와겠습니까? 그 77가지 이유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인터넷): (1) 교회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의 경우: “조용한 교회가 없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짓말이 싫다,” “가정 파괴 광신도를 봤다,” “양보 모르는 압력집단이다.” (2) 교회 경험이 있는 젊은이들의 경우: “기업화된 교회의 위화감이 싫다,” “교회에서 진짜 신앙인을 보지 못했다,” “이중인격자가 많아 싫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와 각처에 있는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란 사람에게 속한 교회도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성립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교회(The church belongs to God)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성립되는 교회란 뜻입니다(박윤선).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성립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므로(faith) 죄악 된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어(called) 하나님의 자녀들(the people of

God)이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교회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the church of God which He purchased with His own blood)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로 사신바 된, 즉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됨(unity)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교회도 하나입니다(요17:22).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고전12:12, 27). 비록 한 몸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12절). 그러나 사람들의 교회의 특징은 바로 “분쟁”(quarrels)(1:10, 11)과 나뉘임(division)입니다(12:25).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히스패닉 사역[Hispanic Ministry(HM)]을 담당하고 계시는 빅토 고메즈(Victor Gomez)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나오면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고메즈 목사님을 통해서 히스패닉 사역에 새로 온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세 사역인 한국어 사역[Korean Ministry(KM)]과 영어 사역[English Ministry (EM)]과 히스패닉 사역(HM) 식구들이 연합으로 예배(joint worship)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교회가 화합(harmony)된 모습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마16:18) 그 약속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 속한 교회요 주님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임을 명심하십시오.

둘째로,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Those sanctified in Christ Jesus and called to be holy)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 상중반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지금 교회는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된 것들로 지금 교회는 오염되어 있습니다. 탐심과 욕심과 욕망과 교만함과 거짓, 분쟁과 다툼, 성적 타락 등등으로 교회는 지금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볼 때 저는 민수기 11장 4절 말씀과 사사기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인하여 불만족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하면서 울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4절)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더럽혀지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섞여 사는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죄악 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더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아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 하였더라”(19, 21, 27, 28, 29, 30 31, 32, 33절)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결과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됐으며 그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2:3). 우리가 이 더럽고 추한 죄악 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더럽고 추한 모든 모양의 악을 다 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해야 하는데 지금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교회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 더럽고 추한 죄악에 많이 오염돼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 마디로, 교회가 세상과 분리하고(나뉘고)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세상과 분리돼 있지만 지금 교회는 세상과 화합(harmony)하고 교회 안에서는 불화(disharmony)가 끊임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지금 사단은 모든 것을 거꾸로 바꿔놓고 있습니다(exchanged, 롬1:23). 사단은 교회를 나뉘게(분리되게, 불화하게) 만들고 세상과는 화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룩한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살전 4:3).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단어의 뜻은 “set apart”, 곧 “떼어두다, 따로 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를 죄와 세상과 따로 떼어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얼마 전 새벽기도회 때 묵상한 출애굽기 33장 14-1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실 것이면 자기들을 있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지 마시길 간구합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간구하였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지길 원한 것일까요? 16절을

보면 그 대답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므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세상에서 교회가 구별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성도"(saint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1)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사랑의 삶).

성경 시편 31편 23절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 믿음을 인내로 지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2)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거룩한 삶).

성경 시편 34편 9절을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악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순종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한마디로, 성도는 옳게 행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로다 하더라."

(3)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예배의 삶).

성경 시편 30편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는 성도들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롬12:1).

마지막 셋째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각처에 거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곧 각처의 기독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박윤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처의 기독 신자들에게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각처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쓴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른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프페이퍼). 교회는 하나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여기 저기 지역적으로 많이 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왜 사도 바울인 고린도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쓰지 않고 각처의 기독 신자들에게도 쓴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쟁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어 각처의 모든 교회도 분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길 권면하고자 한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개교회주의가 팽창한 것 같습니다. 각 지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경향이 더 심해졌습니다. 다른 교회에 대한 배려가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형 마켓이 작은 도시에 들어오므로 주위에 모든 작은 가게들이 손님들을 잃어버려 가게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교회들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는 계속 커가면서 같은 이름으로 지역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우는 가운데 주위에 작은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작은 교회들은 서로가 있는 교인들을 서로 자기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교회가 한 영혼,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잘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로 세우기보다 예배당 안에 교인 숫자를 채우기 바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당에 교인 숫자를 채우는 게 중요하니까 아니면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님의 일군으로 세워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개교회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견제하고 분쟁하며 다투고 싸워서 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싸움과 다툼과 분쟁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줘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신자들이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 되었음을 믿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엡4:3).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지 한 3가지로 배웠습니다: (1)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2)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3)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바라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각처에 모든 믿는 기독교 신자들과 이미 하나 되었음을 믿고 성령의 하나됨을 잘 지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사도행전 2장 42-43절).

릭 워렌(Rick Warren) 목사님(새들백교회 담임)은 이러 주장을 하였습니다: “21세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 건강이다. 교인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1) 교회는 친교를 통해 더욱 따스하게 성장할 필요가 있고, (2) 제자적을 통해 더욱 깊어지며, (3) 예배를 통해 더욱 강건해지며, (4) 사역을 통해 더욱 넓어지며, 그리고 (5) 전도를 통해 더욱 크게 성장할 필요가 있다.’ 그는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숫자보다는, 사역과 선교를 위해 동원되는 교인들의 퍼센티지가 그 교회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보다 정확한 척도’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말보다 “교회다운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에 과연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저는 먼저 교회다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교회다운 교회”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 42-43절 말씀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즉 교회다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4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워서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로 세움을 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 세우시는 사역에 헌신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전혀(지속적으로) 4 가지 일에 힘을 썼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선 이 4 가지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첫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전혀 힘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3000명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전혀 힘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를 예수님의 발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그린바 있습니다(2:46; 8:35; 10:39)(유상섭).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상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총신 신학교 한 교수의 시험 질문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말씀. 성도님들 개개인 마다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영적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모두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다운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배우는데 전혀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서로 교제하기에 전혀 힘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오: “... 서로 교제하며...” 여기서 “교제”란 단어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속에는 2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1)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공유)그리고 (2)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분유).

요즘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인 “교제”(fellowship)는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제인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재미있는 대화나 나눴는가요? 교제가 무슨 사교적 활동을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제인가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도간의 교제는 단순히 사람들과 음식을 먹으며 재미있는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무슨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게임을 한다거나 단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거듭나기 이전에도 해왔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제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나눔 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운 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다른 성도의 어려움을 중보 기도하는 것” “자신의 소유물을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그 것입니다”(인터넷).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제란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 “그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교제”란 바로 “성령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약 3000명 새로운 성도들이 함께 공유했던 것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교제에 헌신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교제는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일치와 단결을 이룬 인본주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중심과 핵심이 되는 성령의 교제 공동체였습니다(유상섭).

셋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성찬에 전혀 힘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오: “... 떡을 떼며 ... 이 말씀은 “성찬”을 가리킵니다. 즉, 초대 교회 성도들은 성찬에 전혀 힘썼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성찬에 전혀 힘을 써야 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오: “...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서 “기도”란 단어는 복수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는 각종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했음을 가리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기도”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가리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120문도의 기도를 본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1:14-15). 이 모습이 교회가 3천 명으로 확장되었을 때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교인들의 수적인 성장은 곧 기도하는 사람들의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기도는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회가 계속해서 가져야 하는 본질적인 모습임을

확인시켜줍니다(유상섭).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에 전심으로 힘을 썼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무슨 뜻입니까? 한 마디로, 그들이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전심으로 헌신했을 때 그 결과는 교회가 불신자들 사회에서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박윤선). 지금 교회의 영적 권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 사회에서 너무나 추락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전심으로 노력해야 할 것에 헌신하고 있지 않고 다른 것에 헌신하고 있으므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과 분열로 말미암아 불신자들 가운데서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이젠 더 이상 불신자들조차도 교회를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교회가 그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힘써야 할 것에 힘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젠 교회가 불신자들 앞에서도 영적 권위가 세워져서 교회다운 교회로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 받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된 교회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데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2)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데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시편 87편).

A. W. 토저 목사님의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란 책은 믿음의 위선을 경고하고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참 신앙 회복서입니다. 저자는 한쪽으로 경도된 신앙, 체형은 있지만 신학이 없는 신앙, 죽은 정통만 간직한 채 하나님 만난 뜨거운 감격이 없는 신앙 등이 현대 교회의 물량주의에 의해 왜곡된 '가짜 신앙'이라고 비판하고, 들플신앙, 진정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참 신앙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섯 가지로 토저 목사님의 책 목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인터넷):

- (1)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워하지 않는다(1장),
- (2)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 면류관 복음을 믿는다(2장),
- (3)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에 우선순위를 둔다(3장),
- (4)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한다(4장),
- (5) 그리고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다(5장).

반면에 왜곡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본문들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다른 본문들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는 그의 책 목록에서 한 여덟 가지로 기록하였습니다:

- (1) 가짜는 인스턴트이다(7장),
- (2)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8장),
- (3) 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한다(9장),
- (4) 가짜는 행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려 한다(10장),
- (5) 가짜는 신조를 무시한다(11장),
- (6) 가짜는 신학을 경시한다(12장),
- (7) 가짜는 감정을 등한히 여긴다(13장) 그리고
- (8) 가짜는 영적 균형감이 없다(14장).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우리는 영을 구별해야 합니다. 영에는 우리 믿는 성도를 옳게 바르게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곧 하나님께서 온 성령과 우리를 미혹시켜서 타락하게 하는 거짓 영인 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영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된 교회, 거짓된 교인, 그리고 참된 선지자, 참된 교회, 참된 교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미혹의 영인 악령에게 꾀를 받아서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받는 교회는 거짓된 교회요,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받는 교인은 거짓된 교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대로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은 참된 선지자요, 참된 선지자의 교훈을 받는 교회는 참된 교회요, 참된 선지자의 교훈을 받는 교인은 참된 교인입니다 (인터넷).

성경 시편 87편 말씀 중심으로 과연 참된 교회는 어떠한지 한 4 가지로 목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교훈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로 더욱더 세움을 받은 계가가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교회는 견고한 기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7편 1절을 보십시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이 말씀은

참된 교회의 영적 기초가 견고함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즉, 참된 교회는 견고합니다. 어떻게 참된 교회가 견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마16:18). 여기서 “반석”이란 사도 베드로의 신앙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다”입니다(16절). 즉,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란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란 바른 신앙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고백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 하다면, 여기서 “반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모퉁이 돌”이란 표현은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크로고니아이오스”인데 아크로는 '높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데 세워진 반석"을 가리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건물들은 모퉁이 돌로써 건축이 시작되고 이 돌의 향방(向方)에 따라 건축물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의 건물이 서야 하며 모든 교회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향방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전하는 말씀의 터 위에, 말씀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석 위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지어져 가며,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집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에 이 성전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인터넷).

그럼 왜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시편 87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신 이유는 그가 그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초석)이 되시는 교회,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며 그 말씀의 터에 세워지는 견고한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87편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셀라).” 왜 참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까? 그 이유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성”(The city of God)이기 때문입니다(3절). 다시 말하면,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 자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영광의 주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시는 까닭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참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구절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The City of God)이란 책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어거스틴이 살았던 때는 서로마제국이 무너지던 때였습니다. 서로마제국의 몰락은 그의 유명한 저서 "하나님의 도성"을 집필하게 하였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인 "가장 위대한 세상의 도시는 몰락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히 거하리라"는 이 책을 집필한 의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인터넷). 로마는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으며, 마침내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으며, 그 나라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로마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로마가 야만족(고트족)들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야만족들에게 멸망될 수 있는가?" 에 대한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어거스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는 깊이 묵상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 나라인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므로 로마는 언제든 지 무너질 수 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며, 이 나라는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인터넷).

우리 교회는 영광의 주님께서 견고히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기뻐하시고 또한 신실하게 약속하신 마태복음16장 18절 말씀대로 세워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a radiant church)로 세워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엡5:27).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길 기원합니다(26절).

셋째로, 참된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87편 5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기서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는 말씀은 지존자이신 주님께서 시온, 즉, 그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8절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 내가...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주님의 몸 된 참된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지존

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심에 있어서 이방인들도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다함께 시온백성이 될 것입니다(시87:4) (박윤선).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가 선택하신 모든 나라의 백성들로서 다민족이요 우주적입니다. 결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선입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민족과 민족끼리 주님 안에서 벽이 있고 다민족과 다양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는 견고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시87:5, 마16:18).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기초가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면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이 들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참된 교회는 천국 시민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7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셀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란 말씀은 모든 민족들이 천국에 입적함, 곧,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들어가는 신약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박윤선). 이 예언에 속한 민족들 중에는 라합, 곧 애굽과 바벨론, 불레셋, 두로와 구스도 포함되 있습니다(4절).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에도 불구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도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시편 기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절에서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다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으로 여겨 주신다는 말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그 모든 천국 시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7절).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빌립보서 3장 20-21절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오직 우리의 시

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결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과연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된 교회는 견고한 기초(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천국 시민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가짜 교회는 흔들리는 기초 또는 모래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는 인간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가짜 교회는 사람이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 교회는 세상 시민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로 세움 받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1)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1)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3)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도행전 11장 19-30절).

유명한 성경 교사이며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섬김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따지고 있느냐, 손가락 하나로 오라 가라 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로 기준을 삼는다. 또는 지적인 수준과 학문적인 탁월함, 임원을 맡고 있는 모임이 몇 개인지를 따지기도 한다. 또 많은 이들은 은행 잔고와 자산과 물질적 소유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위대함을 가늠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리는 평가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주님의 평가 기

준은 오직 한 가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 가다. 그 속에 위대함이 있다.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누군가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 주는 것 이상의 방법이 없다. 세상이 의혹에 찬 눈길로 교회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야말로 크리스트천이 마땅히 시도해야 할 도전이며 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방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인터넷). 세상이 의혹에 찬 눈길로 우리 교회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 합니까? 우리 교회가 마땅히 시도해야 할 도전이며 피할 수 없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 합니까.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섬기되 겸손하게, 즐겁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1장 19-30절 말씀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 아래 과연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던 “이 사람들의 소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중(19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님을 전파하였는데(20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므로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실을 가리킵니다(21절). 이 사실이 소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였습니다(22절).

이 사도행전 11장 19-21절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소그룹 지도자 성경 공부를 하다가 히스패닉 사역(Hispanic Ministry)을 시작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테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방의 여러 지역인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서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희 교회를 이 히스패닉 지역에서 옮기지 않게 하고 계시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은 주님의 뜻은 어쩌면 이 지역에 죽어가는 히스패닉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 아닌가 하고 저희 교회 지도자들이 히스패닉 사역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0개월 후에 지금 히스패닉 사역을 섬기시고 계시는 빅토 고메즈(Victor Gomez)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히스패닉 사역케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들을 제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 소문이 나고 있는 교회인가? 혹은 어떠한 소문이 나길 바라고 있는가?’

언젠가 한번 한국 신문 종교 란에 저희 교회에 대해서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기사를 낸 것도 아닌데 어느 기자가 취재하고 싶다고 하여 올렸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저희 교회가 한 교회 안에 세 사역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교회 지붕 아래서 한국어 사역, 영어 사역, 그리고 히스패닉 사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깐 그 세 사역에 대한 기사를 그 기자가 신문에 실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소문이 이렇게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야 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다’, ‘어떻게 다른 문화, 언어를 가진 세 사역이 어쩌면 저렇게 사랑으로 하나로 뭉쳐있는지 참 놀랍다,’ ‘저 교회는 참으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는 교회야’ 등등 ... 교회 안에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가 갈라지고 그 결과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지 못하는 이 시대에 저희 교회는 한국어 사역뿐만 아니라 영어 사역 및 히스패닉 사역이 한 승리 공동체로서 연합된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길 기원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안디옥 교회처럼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고 싶은데 그것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한 것은 히스패닉 사역을 통하여 저희 교회 옆 아파트 살고 있는 이웃 가정들 중 세 가정(주로 엄마들과 자녀들)이 히스패닉 사역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고메즈 목사님 부부와 우리 한국어 사역 성도님들이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내려가고 있는 멕시코 티화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곳에서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나므로 여러 멕시코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또한 구세주로 영접케 하신 역사입니다. 이 소식을 고메즈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손이 고메즈 목사님과 멕시코 티화나 팀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시므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교회보다 왜 티화나 그 곳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고메즈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지 교회를 그 곳에 세우는 대화가 오고갔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어머니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 것처럼, 저희는 고메즈 목사님 부부와 한국어 사역의 섬기는 자들을 그 곳에 매 달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국어 사역에서 섬기는 자들에게는 멕시코의 문화나 언어가 다르지만 그들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듣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멕시코 티화나 그 곳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조금이나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중국, 인도, 중앙아시아, 그리고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듣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우리 교회 지역 사회를 더욱더 겸손히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자발적으로 섬기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 이 지역 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십시오: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머니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소문을 듣고 이방인의 선교를 인정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종진 지도자 중 하나인 바나바라고 하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총만한 사람(24절)을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23절). 즉,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주신 은혜를 보고 바나바는 기뻐했습니다. 진실로 수다한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실(21절)을 바나바는 안디옥에 내려가서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기쁨 속에서 안디옥 교회 형제, 자매 모든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23절). 이 권면의 말씀은 바로 ‘마음에 목적을 세워가지고 주님께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권면입니다(박윤선).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은 결과는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게 되었습니다(24절). 결국 유대인 전도자들 중 몇 몇을 통하여 안디옥에 수다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그에게 돌아온 후에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는 더 큰 성장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혼자서는 안디옥 교회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공동 목회를 하고자 몸소 다소로 가서 사울(바울)을 찾아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25-26절).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는 큰 무리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철저히 시켰습니다(26절, 유상섭). 그 결과 안디

옥 교회 제자들은 질적으로 놀라운 성숙에 도달하므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비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제자 훈련을 잘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좇았으면 주위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추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트루먼트는 “틀림없이 불행해 질 수 있는 조건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이중성을 가지고 살 때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천 사업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혹시 교회에 다니면서 사업하는 사람을 모두 ‘크리스천 사업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만약 사업하는데 그 사업의 원리 속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장사한다면 그것은 교회 다니면서 사업하는 사람이지만 결코 ‘크리스천 사업가’는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천 사업가’는 사업의 원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적용해서 사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크리스천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의 원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방법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들은 많지만 정작 일터의 현장 속에서 크리스천답게 사업하거나 일하는 사람은 드문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원리 속에 성경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신앙을 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밖으로 나타내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인터넛).

마지막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의 공동목회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온 선지자들 중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 내용은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는 예언이었습니다(27-28절). 그리고 그 예언은 로마 총독 글라우디오의 통치 기간 중에 실현되었습니다(28절). 글라우디오의 통치 기간 중에 로마, 그리스, 애굽은 물론 유대 지역에까지 연속적인 흉작과 이로 인한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났습니다(유상섭). 이 큰 기

근으로 유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므로 결국 유대에 사는 교회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어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때에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고통 중에 있는 유대 형제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29절)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30절).

여기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함에 있어서 사용한 원리를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다름 아닌 “각각 그 힘대로”(each according to his ability)입니다(29절). 이 말은 각각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구제금을 지원하였음을 의미합니다(유상성).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구제 활동은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의 구제 활동을 생각해 만듭니다(행10장). 결국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한 이방인 고넬료의 구제하는 삶을 기록하였던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11장에 와서는 이방인 한 사람이 아닌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어머니 교회라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흥미로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후원으로 성장한 안디옥 교회(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빛을 지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경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적으로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안디옥 교회와의 교제가 더욱더 견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개개인인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와의 교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사도행전 11장에서는 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의 교제가 더욱더 견고하게 된 것을 보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주님 안에서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유대인 교회이던 이방인 교회이던 주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구제하는 교회는 풍족해 집니다. 성경 잠언 11장 25절을 보십시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제를 해야 합니까? 구제 방법 제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인터넷):

(1) 규칙적으로 구제헌금을 드려 구제를 생활화하십시오.

적은 액수일지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자주 구제헌금을 보내면 구제가 생활화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적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도하는 가운데 구제의 대상을 잘 살피십시오.

막연하게 구제하면 구제생활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를 결심했다면, 주님께서 그 대상을 밝혀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자원하는 마음을 은밀히 구제를 실천하십시오.

구제는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구제는 자랑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밀한 중에 갓아 주십니다.

(4) 구제의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자기가 드린 구제 헌금이 어떤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것을 혼자 기뻐하지 말고, 구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과 같은 교회로 세워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2)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사도행전 13장 1-3절).

한국교회 쇠퇴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피영민 목사님(강남중앙침례교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독교인 숫자가 여러 해 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사실을 걱정한다. 그러나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인들이 먹고 살만하면서 배가 부르고, 땅도 가지고 있고, 자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내 자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대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있으니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또 나는 이제 먹고 살만하니 괜찮다고 하는 자기만족에 빠져서도 안 된다. 무관심과 자기만족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악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주위를 한번 살펴보라.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인터벳).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11장 19-30절 말씀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1)란 제목 아래 한 3 가지로 목상하였습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22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므로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21절).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였습니다(26절).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 …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29절).

크리스천 헤럴드(2007년 2월 8일) 신문에 나와 있는 목회자 칼럼을 보았습니다.

저희 노회 목사님이 쓰신 “영성 커가는 교회”라는 글이 있어 읽어 보았습니다. 세계적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의 최근에 발간한 책 “부의 미래”란 책을 소개를 하면서 그 책에서 저자 토플러는 미래사회는 보이는 재산보다 보이지 않는 재산이 더 크고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토플러는 “부의 무형성”을 강조합니다. 그 말은 미래는 화폐, 증권, 토지 이런 것만이 재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식’이 재산으로서 부의 축적을 이룰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던진 질문은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재산은 무엇일까요?”였습니다. 그것을 그 목사님은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영성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했을 때 저는 “사막의 영성”을 추구하자는 도전을 받았습니. 이 도전의 근거는 바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오는 “광야교회”(the congregation in the wilderness)입니다.

사막의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헨리 나우웬의 그의 책 “마음의 길”(The Way of Heart)에서 3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고독,” “침묵,” 그리고 “기도” → 즉, ‘떠나라, 침묵하라, 그리고 기도하라’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 주님과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거짓된 자기(자아?) (분노와 탐욕 같은 것)를 발견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고독은 변형의 용광로입니다. 우리는 고독의 자리에게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침묵은 행동으로 옮기는 고독입니다. 왜 침묵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말을 안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우웬은 고독과 침묵은 기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독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있는 것이고 침묵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은밀한 마음의 기도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성을 추구할 때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행 11:26).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릴 것입니다(찬송가 518장, 1절). 그러한 참 신자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22절).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므로 구원의 역사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21절). 그러한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대로 이웃 사랑함에 있어서 인종과 문화, 편견 등을 다 초월하여 구제합니다(29절). 즉,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의 교회, 구제하는 교회, 소문난 교회가 돼야 합니다. 특히 소문이 나되 안디옥 교회처럼 다양한 일꾼들이 있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길 기원합니다(13:1). 주님께서 저희 교회의 세 사역을 통하여 다양한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이 세우시길 간절히 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안디옥교회(2)”라는 제목 아래 한 3가지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로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출신과 교육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공동 목회를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구레네 출신의 레위인이요, 사울은 다소 출신의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요,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이요, 마나엔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정치적이고 귀족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적인 말씀 사역자는 국제적인 성격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유상섭).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종차별도 하지 않는 교회(흑인인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과 함께 사역), 빈부차이를 따지지 않는 교회(신분이 높은 귀족인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과도 함께 사역)인 안디옥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각 지체가 대등함 가운데 각자의 능력대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다양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이상적 모습입니다(인터넷).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귀족교회”로, 차별이 상식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귀족 교회로, 성공한 사람만 생존하는 교회로 예수님의 몸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이런 차별이 상식화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인터넷). 교회 안에서 무시하면서 서로 차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 성격, 빈부 차이, 학력 차이, 직장, 등등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한 가

족이라는 사실보다 이러한 외적인 것들에 치중하여 주님의 뜻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마치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일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일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교회의 통일성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갈 때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라는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일꾼들이 세움을 받아 함께 교회를 섬기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이끌림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한 2 가지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근거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는 주님을 섬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주를 섬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2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박윤선):

(a)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개인적인 영적 교제를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금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금식은 육적 쾌락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적 감동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박윤선). 안디옥 교회의 다섯 지도자들의 금식을 통한 섬김은 무슨 특별한 문제와 박해가 있어서라기보다 안디옥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뜻을 찾고자 드린 금식 기도 같습니다(유상섭).

(2) **둘째로, ‘섬기다’라는 단어는 또한 단체적인 예배 행위로 가리킵니다.** 성경을 보면 ‘섬기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섬기다’라는 단어는 안디옥 교회의 다섯 명의 다양한 일꾼들이 선지자와 교사로서 교회 안에서 봉사했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행 13:1).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은 전도, 말씀 가르침을 통한 양육,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의 구제인 것을 보면

(11:23-26, 29-30) 안디옥 교회에서의 성김은 이러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유상섭).

(2)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 다섯 지도자들은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지, 즉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이 때에 성령의 음성을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중에 누가 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시키셨던 일은 곧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2절). 여기서 유상섭 교수님에 의하면 2 가지 주목할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a) **성령님께서서는 자신을 위해 두 일꾼을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라는 말은 성령님께서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하나님 의 말씀, 곧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여 사람들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 (b) **성령님께서 지정한 두 사람은 5인 중에 첫 번째 인물인 바나바와 마지막 인물인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은 성령님께서 위임하는 선교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지만 나머지 세 사람 역시 선교 사역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머지 세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 현장에 보내어 그들의 사역을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라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에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요 주님의 뜻대로 복음 전파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3절을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아니 될 것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 후 보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를 부흥케 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그 두 사람을 안수한 후 보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보내니라’는 단어의 의미는 보냈다는 것이라기보다 ‘놓아주었다’(released)라는 뜻입니다(박윤선).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없어서 아니 될 일꾼들인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그들을 선교사로 내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2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1) 안디옥 교회에서 어느 면으로 보면 없어서는 아니 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내놓은 것을 보면 그만큼 선교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결단 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중요한 일꾼들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만큼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주님의 뜻인 선교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2) 또 한 가지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함에 있어서 준비된 일꾼들을 파송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성령님의 뜻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케 하신 것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지에 파송 받은 신앙의 초년생도 아니었고, 목회의 초보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잘 준비된 성숙한 일꾼을 세워 선교지로 파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상섭 교수님의 말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성령의 지시로 선교지로 나가 성공을 거두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국내 사역에서 검증되지 않은 자를 선교지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 앞으로 교회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 즉시 선교 현장에 파송하는 일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격과 신앙 그리고 신학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선교지에 보내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오히려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 하에 최고로 준비된 사람만을 선별하여 보내야 할 것이다.”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

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준비된 훌륭한 일꾼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다양한 일꾼들이 주님 안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는 교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저주를 받고 있는 교회

“너희가 하늘의 별 같이 많았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은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신명기 28장 62절).

언젠가 저는 한 기독교 웹사이트에서 “한국의 카다피, 아무개 목사는 물러나라”는 기사 제목이 눈에 뛰어서 그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목사를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와 비교를 하면서까지 이런 글이 올라왔을까 궁금하여 저는 끝까지 읽어보았습니다. 그 글 내용은 어느 단체의 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란 곳에서 ‘금권 선거와 불법 선거로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아무개는 즉시 회개하고 그 단체 대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은 후 참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 외에도 요즘 우리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죄악된 일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점들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접하게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 마음이 무감각해서 그런지 이제는 이런 기사 내용의 글들을 접하여도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저는 새벽기도회 때 신명기 28장 47-48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한 후 신명기 28장 62절 중심으로 “**저주를 받고 있는 교회**”란 제목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저주를 받고 있는 교회”입니까? 지금 교회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복, 복, 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저주를 받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지금 교회의 교인 숫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교회는 너무나 비대해졌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다(삿7:2). 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의 증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사람(12절)과 전쟁하려는 사사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3절)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명으로 그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신 것일까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2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 자신을 구원하였다고 자궁할까봐 기드온의 300명으로 그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입술로는 기드온의 300명 군사를 외치지만 실제 우리 마음으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처럼 “메뚜기의 종다함”과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것을 원하고 있습니다(12절).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조차도 교인 수 부풀리는데 양심에 거리낌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세로 감투를 써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 떼들은 상처를 입어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겔 34:4-5). 그런데도 우리 목자들은 자기만 먹이므로 우리들의 배를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2절).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이 풍족해졌습니다(신28:47).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일 자기들 주위에 열국같이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17:14) 그 왕은 말(horses)들을 많이 두지 말고(16절), 아내들도 많이 두지 말며(17절상) 또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17절하)고 명하셨는데 솔로몬 왕은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는 말들도 많았고 아내들도 많았고 또한 은금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미혹을 받아(17절) 그의 이방 아내들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28:47).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을 풍족하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겸손히 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복주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돌이켜 우리에게 저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19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하게 하실 것입니다(48절). 아무리 우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입니다(62절).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입니다(63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흠으시고 계십니다(64절). 지금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64절).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함과 쉼도 얻지 못하며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해하고 있습니다(65절).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66절). 지

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더 주리고 더 목마르며 더 헐벗고 모든 것이 더 핍절해야 합니다(48절). 지금 우리 교회는 더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해야 합니다(62절).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29:4).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시는 진노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9절). 결코 우리 교회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19절).

창녀와 같은 교회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에스겔 16장 34절).

얼마 전 미주 한국 일보인가 신문을 보니깐 한국 유학생들이 유학 비자를 받아 미국에 와서 매춘 업을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매춘을 하다가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유학생들이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뉴스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매춘 업을 하다가 걸려서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였는데 이번에는 유학생들까지 그런 매춘에 관련하다가 걸렸다는 뉴스를 들으니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경 에스겔 16장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음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들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른 점은 오늘 말로 한다면 보통 창녀들은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돈을 상대방에게 주면서 자기들의 몸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33절). 저는 “모든 정든 자”들에게 선물들을 주면서 행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에 대해서 한 3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교회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행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화려함”을 믿었습니다.

성경 에스겔 16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

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므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려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화를 입히시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화려함이 온전하여졌습니다(1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히신 영화를 9-13절에 적혀 있습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장해주심에 있어서 황후에게 합당한 몸단장을 시켜 주셨습니다(13절)(박윤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습니다(14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화려함을 믿고 자기들의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였습니다(15절). 그들은 “무릇 지나가는 자”들이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했습니다(15절). 자신들의 몸이 무릇 지나가는 자들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속한 자들과 짝지어 살면서 자기 자신을 좋게 하려고 세상을 즐겼던 것입니다(박윤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교회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교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너무 화려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들어내기보다 교회 자체의 영광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교회의 이름이 더 들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도 브랜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명성으로 인하여 교만해진 교회는 자기의 화려함을 믿고 있습니다.

둘째로, 행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성경 에스겔 16장 20절을 보십시오: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16-19절). 그들은 “의복”, “금, 은 장식품”, “수놓은 옷”, “기름과 향”,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 사용하지 않고, 우상을 위하여였습니다(박윤선).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우상에게 갈다 받치는 영적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자녀들을 우상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사르기까지 했습니다(20-21절). 이러한 유대인들의 제사는, 그들이 이방신 몰록에게 제사한 죄악을 가리

킵니다(박윤선). 즉,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인 자녀들을 하나님께 받치지 않고 이방신 몰록에게 같다 받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자신의 죄악들을 작은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20절).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혹시 교회가 범하고 있는 영적 간음을 작은 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주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용하기보다 그 주신 축복들을 자기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화려함을 내적화하지 못하고 외면화하여 세상과 짝지어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 교회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 자녀들을 하나님께 받치기보다 세상에 받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조차도 자녀들을 주님과 그의 복음과 그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받치기보다 세상의 성공의 사닥다리를 올라가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낳은 자녀들인데(20절) 자기 자신과 세상을 위하여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는 이 죄를 작은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교회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셋째로, 행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행음함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경 에스겔 16장 29절을 보십시오: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체가 큰 네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였습니다(26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가 강한 또는 정욕이 강한 애굽 사람들의 우상 섬김에 열중했음을 말합니다(박윤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28절) “앗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28절)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였습니다(29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이나, 앗수르나 갈대아 나라를 더 의지하였음을 가리킵니다(박윤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인 나라들의 우상을 수입해서 섬겼습니다. 적어도 블레셋 도시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국의 우상들을 수입하지는 않았는데 말입니다(27절, 박윤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욕이 차지 아니한 음란한 여인처럼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과 행음하고도 부족하게 여겼고 족한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혹시 교회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케 하고자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교회가 이러한 정욕이 강하여 하나님 외에 여기 저기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행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마치 음욕이 차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는 영적 간음을 향한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교회가 행음함에 있어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음란한 여인이 되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창녀와 같이 되면 아니 됩니다.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깨끗해야 합니다(엡5:26).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27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27절). 결코 자신의 화려함을 믿고 음행하면서 그 음행의 죄를 작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행음함에 있어서 족한 줄을 모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한분으로만 만족하며 자족하는 교회가 돼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교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예레미야 2장 13절).

한국 속담을 보면 “제가 제 무덤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어리석은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인터넷). 바로 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무덤을 판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2)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다시 말하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허탄한 것”(5절) 또는 “무익한 것”(8, 11절)을 쫓았습니다. 그 허탄하고 무익한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우상숭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등을 하나님께로 향하였고 그들의 얼굴은 자신들이 만든 신들을 향했습니다(27-28절). 이렇게 배도하고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19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버림과 그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바로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고통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고 있는 우리 교회, 그 결과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교회의 모습에는 한 3 가지 죄악 된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범하고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2장 23절을 보십시오: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좇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 자기들의 행한 바를 깨닫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스스로 더럽히고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는 마치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처럼(23절) 그리고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처럼 막을 수 없는 “성욕”으로(24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좇는 영적 간음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3:5)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수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은 “창녀의 낫을 가졌”기 때문입니다(3절).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 가 염려스럽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교회,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께 범하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교회, 성경은 창녀의 낫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절). 우리 교회는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좇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을 보아야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보아야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원하는 우리의 최악 된 욕망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징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2장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징책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마치 매를 맞으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녀처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 다른 신들을 좇았습니다. 그들은 여기 저기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36절). 그들은 앗수르로 갔었고 또한 애굽으로도 가서 그들을 의뢰하였습니다(36절). 더 나아가서, 유다 백성들은 죄를 지적하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아예 죽여 버렸습니다(30절).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32절). 그러면서도 그들은 “나는 무죄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참으로 자기들에게서 떠났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35절).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 가 염려스럽습니다. 죄를 깨닫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으면서도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의 마음은 강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 선포자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무죄하”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우리를 치신 후 잠잠히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영영히 우리에게서 떠난 줄 착각하고 또 범죄하기를 담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나 물질을 계속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형통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37절)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된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찬송가338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거짓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3장 10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패역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행음”하였습니다(8절). 그들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였습니다(9절).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 같이” 유다 백성들은 정녕히 하나님을 속였습니다(20절). 그러면서 그들은 표면적으로(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척(pretense)하였습니다(10절).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 모임이나 부흥집회 때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듯 해 보이는데 한데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는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좇으며 우리의 욕심을 만족케 하고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인데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척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10, 12-14절).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버릴 것들을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돌아가야 합니다(13절).

스스로 옹덩이를 팠던 유다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 교회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징책을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살 길입니다.

부패한 교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출애굽기 32장 7절).

요즘 한국 교회 분위기를 가리켜 ‘심심하다 같아보자’라는 말을 어느 목사님에게 듣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물어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심심하다 같아보자’란 말은 교회에서 심심하니깐 담임 목사를 바꿔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목사님의 이웃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그리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제가 교회에서 이러한 부패한 모습들을 너무나 듣고 보는 가운데 제 자신이 그런 일들에 익숙해져 그런가 봅니다.

성경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의 배경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뎠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1절)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은 그들에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 오라”고 명하였습니다(2절). 그 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 오매”(3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4절). 그리고 나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고 말한 후(4절) 그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와 절일이니라”로 공포하였습니다(5절).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6절). 이것을 다 보고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에서 내려가라고 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7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리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와 절기에

금송아지 앞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6절) 앉아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19절) 놀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일요일은 주님의 날(주일)이라고 아론 같은 지도자가 선포하였을 때 온 성도들이 주일 주님의 전에 올라와 ‘금송아지’같은 것을 마음에 새겨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즐기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서 과연 금송아지 같은 것이 현대 교회 안에는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라 생각합니다(마6:24). 지금 돈을 탐하는 마음(탐심)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골3:5). 지금 이 시대는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우리도 마음이 오염 되어 물질만능주의 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물질의 복을 받고자 주일 주님의 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으면 이러한 추태를 부리겠습니까? 그러고도 우리 양심에 찔림이 없으니 이러한 교회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9절).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길을 속히 떠났습니다(8절).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제사)을 드렸습니다(8절). 결국 목이 곧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을 속히 떠나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넓은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사랑하여 우상화하므로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중심된 이면적 신앙생활이 아닌 나중심된 표면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참 멋져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에 계속 패하면서 패배감속에서 더 이상 말씀에 이끌림을 받기보다 죄악 된 옛 본능에 이끌림을 받아 거듭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죄에 익숙해져 가는 삶속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영적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는 화인 맞은 양심(딤후 4:2)과 철강보다 뜨거운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서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길을 속히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었을 때 모세에게 “나대로 하게 하라”(Now leave me alone)고 말씀하셨습니다(10절).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셨습니다(10절). 그 때 모세는 하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11절). 그는 하나님께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마”시길 간구했습니다(12절). 특히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13절)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14절). 그러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금송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 두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 들고 있었던 십계명이 쓰여 있었던 두 돌 판들을 던져 깨뜨렸습니다(19절). 그리고 나서 모세는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우게 하였습니다(20절). 또한 모세는 그의 형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을 보고(25절)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한 아론을 면책하였습니다(21절ff.). 그런 후 하나님의 편에 선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26절)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게 하여(27절) 그 날에 백성 중 약 삼천 명 가량이 죽인 바 되었습니다(28절). 이틀 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그들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해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30-32절). 자기의 이름이 주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큰 죄를 사해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32절).

우리 부패한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큰 죄들을 자백하며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한 큰 죄들을 향한 분노와 더불어 그 큰 죄를 범한 우리 자신들을 보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울며 회개해야 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속히 떠나 우리 자신을 위하여 범한 죄들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회개하는 가운데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금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목을 곧게 해서 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자하여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 분께서 우리를 사단의 왕국에서 건져 내시사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분 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한 그 분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야 합니다.

지혜 있는 교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신명기 4장 5-6절).

어리석은 목사입니다. 어리석은 목사로 인해 교회도 어리석은 교회가 될까봐 염려됩니다.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왜 이리 조급하게 행동을 하는지 ... 어리석은 목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데 왜 이리 경솔히 행하는 것인지 ... 어리석은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음성과 교훈을 그 때 그 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교훈하실 때는 안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교훈하실 때에는 하는 청개구리와 같은 어리석은 목사입니다. 왜 이리 뒤죽박죽인지 ... 참으로 어리석은 목사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경솔한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수동적이 여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도 받습니다. 그 때 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훈을 받아 겸손히 순종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지혜 있는 교회로 세움 받길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 4장 5-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광야 교회”(행 7:38)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셨습니다(1절). 그리고 모세는 그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그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5절). 그런 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6

절).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그들)의 지혜요 너희(그들)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6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민족이구나!](현대인의 성경)]하고 감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 있는 광야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한 4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지혜 있는 교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압니다.

성경 신명기4장 35, 39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와 하나님 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와 하나님 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32절). 그 “큰 일”이란 바로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인도하여 내신 일입니다(34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행하신 이 일(34절), 이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와 하나님 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그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35절). 그러므로 나타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와 하나님 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인정하고) 명심”했어야 했습니다(39절). 즉, 그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이심(현대인의 성경)]을 알았어야 했습니다(6:4).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볼 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습니까?(4:32)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엡1:4, 신4:37)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 유월절 어린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애굽과 같은 이 사탄의 왕국에서 건져내시사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약속의 땅인 저 천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나타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보고 경험한 하나

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신 6:4).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로 지혜 있는 백성입니다. “오직 여호와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아는 교회는 지혜 있는 교회입니다.

둘째로, 지혜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경 신명기 4장 37-3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37절).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34절).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출13:21, 느9:12, 19). 이렇게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신4:37) 오직 한분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고 하셨습니다(38절). 즉, 크신 하나님은 자신의 큰 권능으로 사랑하여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목적은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한 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큰 능력과 퍼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었습니다(9:29).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6:12). 그리고 그들은 “강한 손과 퍼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했어야 했습니다(시136:12).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에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원망해서는 아니 됐었습니다(신 1:27). 또한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해서는 아니 됐었습니다(느 9:18).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시23:1-3).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있는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신8:3) 또한 그들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츠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4

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일하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므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삼하22:20, 시18:19) 지금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인도하시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 교회를 빛으시고 단련시키시사 우리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계십니다(신8:2-3). 비록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모르지만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은 “나(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그(하나님)가 아시나니 그가 나(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우리)가 정금 같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욘23:10).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계십니다(시105:19).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십니다(66:10). 그러시면서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진정한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시되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139:24)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훈으로 나(우리)를 인도하”시고(73:24) 또한 우리를 “안전히 인도하시”므로(78:53) 우리의 길이 형통합니다(사48:15).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시23:4).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사(48:14)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73:24).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바로 지혜 있는 교회입니다.

셋째로, 지혜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성경 신명기 4장 6, 33, 36, 4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 없이 오래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그들에게 듣게 하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36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그

들)처럼 듣고 생존하였”습니까(33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광야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게 하셨습니다(1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감하지 말고”(2절) 준행하며(1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2, 40절). 그리할 때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 없이 오래 살”것입니다(40절).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했어야 했습니다(6:5).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6절)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쳤어야 했습니다(7절).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사28:23).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히5:8).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요 14:21).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듣고 준행해야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눅10:27).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지혜 있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지혜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 신명기 4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민22:12).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신4:37).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습니까?(3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출18:9) “큰 능력”으로(신9:29)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민족이 없었습니다(4:33,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신을 모신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7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약1:5, 6).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지 않고 우리에게 지혜를 후하게 주실 것입니다(5절).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행 2:42). 지혜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내(우리)에게 기울이셨으므로 내(우리) 평생에 기도”합니다(시116:2).

교회의 어리석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마6:5). 또한 교회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신21:18). 교회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잠3:7)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5절). 세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교회의 어리석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인 탐심(골3:5)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마6:24)은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다 버려야 합니다(잠9:6). 우리들은 탐심과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불순종의 죄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혜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우리들, 지혜 있는 교회로 세움 받길 기원합니다.

성장하는 교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교회성장연구소”에 나와 있는 “교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가장 위대한 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변화의 주도자는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0 가지를 제안합니다:

- (1) **변화를 위한 지도력을 확보하십시오.** 사람들은 지도자를 바라보고 있으며 변화는 그 지도자와 함께 시작된다. 개혁을 위한 리더십 팀을 만드십시오.
- (2) **건강한 교회의 표적을 구하십시오.** 변화의 목적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교회는 진단, 처방, 노력, 능력의 합산의 결과입니다. 건강진단과 처방은 필수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표적은 믿음, 리더십, 탁월성, 헌신, 창조성, 순종 등입니다.
- (3) **창조적 위기의식을 가지십시오.** 가장 큰 위기는 위기감이 없는 것입니다. 건전한 위기감(sense of urgency)은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입니다. 개혁은 즐거운 대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행동으로 가능합니다.
- (4)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십시오.** 앞을 보지 않고 백미러만 보는 자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과거형 목회도 현재형 목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래형 목회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형식보다는 의미를, 보존보다는 창조를 추구하십시오.

- (5) **예산과 재정을 재평가하십시오.** 앞으로는 경제문제가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영성관리도 허물어 질 수 있습니다. 예산과 재정 상태를 보면 그 교회의 성장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 (6) **비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과 비전입니다. 비전을 가진 자는 행동, 관계, 능력, 영성 면에서 구별됩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비전은 소유보다 전달과 성취가 더 중요합니다. 비전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 (7) **성도들을 힘 있게 하십시오.** 성도를 강하게 하는 것이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성도를 돕는 한 명의 목회자보다는 목사를 돕는 다수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평신도를 구비시키는 일이야말로 목회자의 최대 사명입니다.
- (8) **작은 성공을 축하하십시오.** 성공은 성공을 낳습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할 줄 알아야 큰 성공이 계획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보상과 인정이 존재하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입니다.
- (9) **변화의 재생산을 추구하십시오.** 변화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한 조직의 성공은 다른 조직의 성공으로 확대 재생산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소유모델이 아니라 분배모델로서 존재합니다.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동기부여만 확실하게 해주어도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한 셈입니다.
- (10) **변화의 문화를 정착시키십시오.** 변화는 단 두 사건이 아니라 매일 계속되는 생활양식입니다. 변화가 교회의 문화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화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인터넷).

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어떠한지 한 4 가지로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성장하는 교회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아 교회가 평안하여…” 초대 교회에 평안함이 있었던 환경은 박해와 어려움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 가운데 있는 내적인 평안함이었습니다(유상섭). 이러한 내적인 평안함은 평안함이 없는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첫날 저녁에 두려워하여 모여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Peace be with you!)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강은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입니다. 교회에는 이러한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들은 어떠한가? 과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평강)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고 교회들은 어떠한가? 이런 저런 문제로 교회의 평안함이 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다 평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 세 지역이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 8-9장에서 스테반의 순교로 인한 핍박으로 인해 각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는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여기 저기 전파되어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결국은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함도 널리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핍박으로 성도들이 흩어지기보다 교회 안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흩어지심을 경험하고 있으며 흩어진 성도들이 여기 저기 교회에 가서 평안함을 전하기보다 또 다른 교회에 가서 평안함을 깨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화평케 하는 자들(Peace-makers)도 있겠지만 화평을 깨는 자(Peace-breakers)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빌 4:6-7). 피스메이커 사역의 설립자이며 대표인 켄 산데 목사님이 1982년부터 성서적인 원리를 사용하여 교회 분열과 사업, 고용, 가정상의 논쟁을 포함한 수백 개의 갈등사례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피스메이커」-개인적인 갈등해결의 성서적 지침서(The Peacemaker: A Biblical Guide to Resolving Personal Conflict)를 비롯하여 갈등 해결에 관한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 기독인들은 먼저성경을 통해 갈등 해결의 원리를 파악해야 한다. … 피스메이커의 완벽한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한다. 또 그런 원리들을 우리 삶에 실천하기 위해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 갈등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는 법을 배운다면 갈등에 대한 회피 및 공격 반응에 따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성경은 모든 갈등이 나쁘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차이는 자연스럽고 유익하다고 가르친다. 기독인은 갈등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항상 우리에게 동의하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을 기뻐하고 다른 관점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롬 15:7,14:1~13). 기독인이려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뿌리를 제거하고 진정한 평화의 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약 4:1~2, 마 18:15)”(인터넷).

둘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든든히 서 갑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 여기서 든든히 서 가라’란 말은 세워 올라감을 의미하는데, 이는 외부적 사업 면을 말함이 아니고 내부적인 경건 면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초대 교회 여러 지역 교회들은 외부적으로 크게 건설되기보다 내부적으로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영적으로 크게 건설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크게 건설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란 말씀에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든든히 서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장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 간다는 교훈은 즉 성장하는 교회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지금 현재 우리 교회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외부적으로 크게 교회 건설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사랑의 요소보다 분열되었던지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진리는 교만하게 하는 지식은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

량은 덕을 세우나니”(Knowledge puffs up, but love builds up).

(2) 오직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

(3)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도움을 받아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먼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2-3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오히려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돼야합니다. 말하는 것도 ‘이것이 남에게 유익이 될까?’ 생각해 보고 말하고, 행동도 ‘이것이 남에게 유익이 될까?’ 생각해 보고 그렇게 행하면 그것이 덕을 쌓아 나가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초신 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교회 출석을 막는 것을 보면 먼저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혀(말)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혀로 죄를 범치 말도록 힘써야 합니다.

(2)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힘써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음의 덕이란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생

활을 이끌어가는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반대로 내 주장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하는 믿음생활이라면 덕 없는 믿음입니다. 교회에서도 자기주장만 옳다고 내세우면 그것이 아무리 틀린 것이 아니라 해도 덕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하겠지만, 그 외의 것은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만 하면 그것이 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된다면 지는 것이 덕입니다.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양보가 덕입니다(인터넷).

셋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기서 “주를 경외함”이란 말은 “신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행하면서 그의 뜻을 순종하려고 전심함”입니다(박윤선). 성장하는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의식 가운데서 경외심을 가지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 중에 하나가 아모스 5장 14절에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살기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악을 떠나 선을 행합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주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서 그의 뜻을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면 넘칠수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도 우리 안에 넘칩니다(고후1:5).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4절). 이러한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는 환난 중에도 내적 평안이 있습니다(박윤선).

교회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진리를 행하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사 충분한 위로를 주시기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대로 성령님은 “성경의 안위”(the encouragement of the Scriptures)로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하십니다. 이러한 위로를 받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가 증가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은 교회가 외부적으로 장성함이니, 교인들의 숫자가 증가됨을 이릅니다. 교회가 내부적인 은혜는 없이 숫자만 많아지면 영적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같은 내부적 은혜가 있는 교회는 양적으로도 장성하고 또 영적 평안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박윤선). 성경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는 말씀이 있고 4장 4절에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남자의 수만 약 오천이나 되었고 6장1절에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꽃향린교회 김경호 목사님의 글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병폐가 성장주의라고 봅니다. 성장주의 병은 큰 교회 뿐 아니라 작은 교회도 걸려 있지요. 교인 수 배가 운동하고, 끊임없이 숫자의 성장만을 제시하지요. 숫자의 증가만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표징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실은 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이 역사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과 거리가 먼 거죠. 성장 병을 고쳐야겠다는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피부로 느낀 겁니다. 사실 목사가 성장 병에 제일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부터도 거기서부터 선을 긋자고 스스로 다짐을 했고, 자립할 만한 규모가 되면 분가를 해서 자립한 공동체 교회가 자꾸 생겨나는 것이 건강한 성장의 방법이라 생각했어요”(인터넷). 여러분은 김경호 목사님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양적 성장)하는 것이 무조건 비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매우 경계해야 할 것은 교회의 질적 성장만을 주장하면서 양적 성장을 비판하는 경향입니다. 물론 교회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여 양 도둑질을 하는 것도 교회의 큰 문제이지만 질적 성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양적 성장이 없다는 사실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윌리엄 채드워 목사님은 그의 책 “양 도둑질”(Sheep Stealing)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양 도둑질 했던 성장제일주의 목사”라고 말하면서 양심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는 왜곡된 교회성장의 이면 가운데 하나인 '수평이동성장' 문제를 이 책에서 들춰낸 것입니다. 그는 교인을 양(sheep)에 비유하고, 이웃 교회의 교인을 내 교회로 옮겨 오게끔 만드는 모든 시도와 노력을 대담하게 양 도둑질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분의 말

씀을 들어보십시오: “90년대 들어 수적 성장이 둔화되면서 그동안의 교회성장이 '회심성장' (conversion growth, 전도에 의한 새신자 증가)이 아니라 '수평이동성장'(transfer growth, 교인들의 수평이동에 의한 외형적 성장)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통계상으로만 성장했을 뿐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스스로 수평이동 성장을 추구한 목회자였음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수평이동 성장이 아니라 회심성장이어야 함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저자가 이웃교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교인을 끌어들이고 자신의 교회를 살찌운 이른바 양 도둑질의 내력을 구체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인터넷).

우리 교회에는 평안함이 있길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를 더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교인 수만 점점 더 늘어나는 교회이면 되는 것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해서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안을 누리며 성장해 갔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
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며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다.”] (사
도행전 9장 31절)**

어제 저녁 8시, 영어사역 성경공부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첫째로 예상하지 못한 일은 저는 많이 오면 두 명이 올 줄로 예상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지난 주일 영어예배 때 설교하면서 제가 교회 지도자로서 영어사역 두 명의 지도자들과 대화하면서 금요성경공부 모임을 금년 말까지 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후 몇 주 동안 금요일에 모이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명이라도 금요일 성경공부에 참석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말씀 묵상을 통하여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 금요일 저녁 8시에 저는 고등학생 한 명만 올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아니면 지도자 한명 대학생 형제도 어쩌면 오겠다고 생각했었는데 7명이나 온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은 그 7명 지체들 중에 한 형제와 성경공부 후 주님 안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를 통하여 그 형제를 더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성경공부 후에도 다른 지체들이 찬양 연습을 할 때에 저는 그 형제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서 참 감사했던 것은 그 형제가 지금 겪고 있는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그 형제가 자신의 마음에 평안(peace)이 있다고 말하니 감사했습니다. 일곱 자매, 형제들과 성경공부 후 그 중에 한 형제하고 이렇게 귀한 대화를 한 후 저는 두 학생들을 집에다 데려다 주고 사랑하는 첫째 딸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날 밥 잠들기 전에 오늘 새벽기도회 때 읽을 사도행전 9장부터 말씀을 읽

다가 제 시선이 31절에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구절에도 어제 금요일 새벽기도회 때 묵상한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처럼 초대 교회에 신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다”(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심하고 사도행전 9장 1-30절을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에 수가 더 많아지게 하셨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대 교회의 신자의 수가 더 많아진 것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2장 47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현대인의 성경). 제가 사도행전 9장 1-30절을 읽고 읽다가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신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신 방법을 19-20절과 28-29절에서 그 대담을 찾게 되었습니다: “...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19-20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28-29절).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초대 교회에 신자의 수를 더 많아지게 하신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던(4-5절)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거듭나게 (conversion)하시고 사명(commission)을 주신 주님께서 그 “택한 나(주님)의 그릇”(15절)인 사울로 하여금 “각 회당”과(20절)과 “예루살렘에 출입하며”(28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29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20절) “담대히”(29절) “전파”케(20절)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게 하시므로(22절) 신자의 수를 더 많아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와중에 사울의 말을 듣고 당혹하게 되었던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22절)은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고(23절)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습니다(29절).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사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29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22절) 담대히(27, 29절) 증언(말)하므로(22, 29절) 말미암아 초대교회에는 신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과연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증언하므로 초대 교회에는 신자의 수만 점점 더 늘어나게 된 것일까요? 과연 신자의 수만 점점 더 늘어나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의 근거를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적어도 주님께서 한 3 가지 역사를 이루시사 초대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 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초대 교회는 평안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십시오: “... 교회가 평안하여 ...” 좀 놀랍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서 어떻게 초대 교회는 평안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의 매는 줄로 초대 교회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 성도들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켰기에 (엡4:3) 그 교회는 평안했습니다.

둘째로, 초대 교회는 든든히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십시오: “... 든든히 서 가고 ...” 어떻게 초대 교회 신자들은 든든히 서 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운 것입니다(행20:32,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초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자신들의 모든 길을 든든히 했습니다(잠4:26).

셋째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경외하며 또한 성령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십시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핍박을 받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초대 교회에는 신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31절하). 그리고 초대 교회는 교인 수만 더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 교회였습니다(31절).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강도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마태복음 21장 12-13절).

성경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이스라엘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9절).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나라,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일까요? 왜 그들은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을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주님의 것들 도적질하고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도적놈이 도적질하면서 자기가 도적질하고 있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까? 모르기에 양심에 찔림도 없을 것이요, 양심에 찔림도 없기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도둑이 제 발은 저려야 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2-13절을 보면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면서 그들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 것을 우리가 다 알기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의 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강도들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웬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저 교회 안에 강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득실거릴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이 들리는 것은 왜일까요? 혹시 주님께서 잘 못보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히 새벽기도회나 철야기도 등 주님의 집에 가면 기도 자들이 그리 많을진대 어떻게 주님께서 주님의 집을 우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과연 누가 “강도”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본 우리들인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를 파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록된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13절). 그렇다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강도”들이란 말일까요? 그 당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멀리서 유월절 지키러 오는 자들에게 제물(소나 양 혹은 비둘기)을 살 수 있는 편리를 주기 위하여 처음에는 성전의 한 구석에서 매매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타락하여 영리주의에 흐르고 성전 안까지 장마당이 된 것입니다(박윤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은 외국에서 성전 세를 세겔로 못가지고 오는 자들에게 편리를 주기 위하여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박윤선). 그러던 사람들이 아마도 이익을 남기게 되면서 재리를 탐하게 되어 거룩한 기도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게 되어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도다”라고 책망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책망의 말씀이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강도들”이란 산적(bandit)같은 자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소굴처럼 여기고 그 성전에 왕래하는 사람들의 재물을 약탈하여 자기 이를 챙기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당시 매매하는 자들이나 돈 바꾸는 자들처럼 교회 안에서 사업을 하므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강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저는 평신도 성도들을 얘기하기보다 우리 목사님들을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목사님들 중 가짜 “복음”을 전파하므로 많은 군중들에게서 돈을 기부 받아 그 돈을 가로채는 가짜 목사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피땀 흘려 벌어서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가로채는 가짜 목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지금 주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의 원인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빌립보서 2장 3절 상 반절).

교회 안에서 다툼의 원인 중 하나는 허영심입니다(빌 2:3). 만일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행 7:38).

만일 광야 교회가 장로교회라면 그 교회의 목사님은 모세이고 장로님은 아론입니다. 그리고 광야(장로)교회 당회에는 가르치는 장로인 모세 목사님과 치리하는 장로님인 아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란 사람들이 (이 네 사람들 중에 고라가 광야교회 당회를 반대하는 당파의 지도자인 듯) 당파를 저서(민 16:1) (왜 이리 교회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당파를 짓는지) 이스라엘 회중에 유명한 150명 족장들(교회 중진 지도자들?)을 포섭하여(포섭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없었으면 ㅋㅋ) 함께 일어나서 모세 목사님과 아론 장로님을 거슬렀습니다(2절). 그들은 그 두 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그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3절). 그 말을 들은 모세 목사님은 먼저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4절) (어찌겠습니까, 목사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그리고 나서 모세 목사님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렇게 면책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7절). 어떻게 고라와 그 모든 무리들이 너무 분수에 지나쳤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하신 그 귀한 직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9절). 그래서 그들은 아론과 같이 제사장 직분을 구하였던 것입니다(10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직분을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므로 말미암아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여(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높이는 교만) 분수에 넘치는 행동과 더불어 분수에 지나친 말을 모세 목사님과 아론 장로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 마음에 허영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빌2:3). 그들은 광야 교회에서 당회를 거슬렀던 이유는 그들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

이 모세 목사님과 아론 장로님만을 거슬린 것이 아니라 그 두 분을 광야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도 거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민16:11).

이렇게 광야 교회에 허영심에 가득 차 분수에 지나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큰 도시 교회(특히 큰 교회?) 안에는 허영심에 가득찬 "고라" 같은 한 사람이 있어 당파를 짓고 회중 안에서 유명한(?)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여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놀랍기까지 합니다. 왜 그는 지금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지금 그는 싸우는 정욕에 이끌려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 다투는 이유는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가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분수에 지나치게 생각하는 그는 교회 회중 가운데서 높임 받는 것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를 얻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내어 얻고자 해도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능히 취하지 못하고 있으니깐 그는 더욱더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지금 누가 장로교회 안에서 허영심에 가득 차 분수에 지나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는 혹시 교회 장로님이요, 교회 목사님이 아닌가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로교회 안에서 큰 문제는 교회 평신도 분들이 아니라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입니다. 왜 장로님들은 그리도 목사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도 말을 잘하는 아론 장로님이 말 못한다고 말하는 모세를 못 마땅히 여겨 광야교회에서 쫓아내었나요? 목사님이 못 마땅히 여길 정도로 그렇게 장로님들이 잘 나셨나요? 왜 목사님은 그리도 장로님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도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 목사님은(출33:11) 이스라엘 회중을 방자케 한 아론 장로님을(32:25)을 치리하여 장로직을 박탈했었나요? 이렇게 장로교회 안에서 당회원들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다투고 있으니 어떻게 교회가 평화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장로님들.

지금 성도님들이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같은 형제, 자매들인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제발 좀 그만 싸우십시오.

제발 좀 서로 화해하시고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제발 좀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길 기도합니다(빌2:3. 5)

교회의 분쟁 원인 (1)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라”(로마서 12장 6, 16절).

교회 분쟁,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해야 할 교회가 왜 서로 다투며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교회의 분쟁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다양성을 인정 못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부부의 분쟁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당신과 나는 그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부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좀 다를 뿐이다’(We are just different)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 ‘당신은 틀렸다(잘못됐다)(You are wrong)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부부는 서로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관계가 ‘당신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를 보면 다투며 싸우는 이유는 ‘그저 다를 뿐인데 당신은 틀렸다’라는 생각과 자세로 서로를 대하므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자세 가운데에는 ‘나는 맞는데 당신은 틀렸다’는 교만함의 쓴 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맞는데 당신은 틀렸다’라는 뿌리 깊은 생각이 도사리고 있기에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고 결국은 비방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쟁의 깊은 원인은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원인은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즉,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난 지혜롭고 당신은 미련하다’는 자세로 상대방을 바

라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입니다(약3:15).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14절). 만일 자랑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14절).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3장17절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18절) 우리에게 관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은사’ 기준으로 다른 지체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판단하며 비판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은 지체들이 모여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우리 모두가 서로 마음을 같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모두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빌 2:5). 자기를 비우며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부터 온 지혜로 서로 관용하며 화평한 가운데서(약3:17)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을 충분히 사용하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엡4:3).

교회의 분쟁 원인 (2)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고린도전서 3장 3절).

교회의 분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고전3:3).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고전3:1) 우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고 젓을 먹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2절).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2:13). 육신의 속한 자들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14절). 그 이유는 성령님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14절). 또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님을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14절).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에 동참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성령님의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엡4:3). 분명히 바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고전3:3). 사람을 따라 행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말합니다(1:12).

이러한 현상은 요즘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나는 모 담임 목사님에게,’ ‘나는 모 부목사님에게’라고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부 목사님은 바울이나 아볼로처럼 그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인데도 말입니다(3:5). 더 큰 문제는 평신도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그저 바울과 아볼로처럼 주님께서 각각 주신대로 맡겨 주신 양떼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뿐일진대 이 사실을 종종 망각하여 양떼들을 갈라 놓는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바울과 아볼

로처럼 심고 물을 주는 자들일 뿐인데(6절), 즉 “아무것도 아”닌”데(nothing)(7절) 뭔가가 된 것(something)처럼 착각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심고 물을 주는 것뿐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7절).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뭔가가 된 줄 착각하며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everything)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망각하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육신에 속한 평신도보다 육신에 속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쟁을 막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신령한 자들”이 되어야합니다(1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합니다(13:11). 우리는 더 이상 젖을 먹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3:2).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야합니다(2절).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하시는 성령님(2:10)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12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들을 분별해야 합니다(13, 14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16절) 주님이 그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해야 합니다(찬송가246장, 1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의 교회를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비록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을 수 있으나 구세주 되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찬송가 347장, 1절). 승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 하기까지 늘 봉사”하길 원합니다(찬송가 246장, 3절).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

교회 지도자 성경공부 시간에 사도행전 4장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깨달음이 있어 벅 차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어 내려갑니다. 그 깨달음이란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주님의 교회(본문에선 초대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패턴(pattern)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 패턴과 현 시대 우리 교회들이 세워짐의 패턴이 정반대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의 패턴을 한 다섯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심(마16:18)에 있어서의 패턴에 다섯 가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본문 사도행전 4장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과 교회에게는 박해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자들은 내부적으로는 종교지도자들[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1절), 관원, 장로, 서기관들(5절), 대제사장들(6절)]이었고 외부적으로는 이방인들[열방, 족속들(25절),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26절)]이었습니다.

지금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외부적인 박해자들이 있는가 하면 내부적으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방해하며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에선 내부적인 대적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2절) 사도들을 불러 세워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7절)고 물었습니다. 그리할 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였다고 사도행전 4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24-3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

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 난 후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23-24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합심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한 2 가지로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므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 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환경을 바라보면 박해자로 말미암은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믿음의 본을 본받아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시편 2장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2장 1-2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4장 27-28절에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대적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들을 박해하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대적자들이 현실에 삶 속에 있는 것을 부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바로 세워 가는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두 번째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8절과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8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31절).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야만 교회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는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사도행전 4장 1-20절에서 한 3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성령 충만한 삶은 담대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담대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더니 그와 다른 사도들을 박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courageously)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놀랐습니다(13절).

(2) 성령 충만한 삶은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십시오: “...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불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는(18절)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5절)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19절).

(3)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보고 들었기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세 번째 방법은 복음전파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8-12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10절, 비교: 7, 12, 17, 18절)으로 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12절)고 그를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하였습니다(18절). 마치 복음성가 “예수 그 이름”에서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을 박해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과 사랑을 모르기에 그 이름을 싫어하여 사도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17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 이름”은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앓은뱅이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3:6).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네 번째 방법은 구원 받는 사람을 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

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믿은 남자들의 숫자가 5천명이란 사실은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 있어서 적어도 3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1) 5천명이 등장한다는 것(눅 9:14과 행 4:4), (2) 우리들이 모두 말씀을 들었다는 것(눅 9:11과 행 4:4), (3) 사건 전에 치유의 기적이 있었다는 것(눅 9:11과 행 3:1-10). 오병이어 사건을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할 복음의 양식으로 제시한 저자가 사도들에게서 말씀의 양식을 먹고 구원받은 사람 5천 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닙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핵심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바 됨으로 주어진 영생(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사도들의 복음전파를 통하여 남자의 수가 약 5천명이나 되었습니다(4절). 성경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과 복음전파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4절). 사람이 교인 숫자를 늘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주님께서만 더하신다는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마지막 방법은 공동체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32-35절을 보십시오: “믿는 우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32절).

한 마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top - bottom(위에서 밑으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시작(initiate)하시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세상의 방법은 정반대라 생각합니다. 즉,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방법은 bottom - top(밑에서 위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방법의 우선순위에서의 첫 번째는 기도

이지만 세상 방법은 교회란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자 노력한다고 하지만 요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여러 마음과 여러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도이지만 이 기도조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주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자세로 상황과 느낌과 우리 생각에 치우쳐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세 번째 방법은 교회 숫자 증가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 받는 사람들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양 도둑”이란 책에서 말 하고 있는 것처럼 수평이동이요 양 도둑질로 말미암아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인들의 이름을 봐서 나오는 사람들 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방법에 가서야 성령 충만 함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방법에선 제일 마지막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함도 과연 성경적인지 감정적인지 신비스러울 정도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행전 4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마 16:18)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은 그의 교회를 어떻게 강성케 하실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삼 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삼 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역대하 11장 16-17절).

과연 주님의 교회는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예”라면 그것은 과연 우리 사람이 보기에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은 아닌지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의 교회는 지금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인가요?

주님은 그의 몸 된 교회를 강성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시기에 주님은 오늘도 그의 교회를 강성케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님은 그의 교회를 강성케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3 종류 부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강성케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마음을 오로지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역대하 11장 1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 시대 때 마음을 오로지하여 하나님을 구했던 자들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13:9). 그래서 마음으로 오로지하여 하나님을 구했던 자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남쪽 유대로 돌아왔습니다(11:13). 그들은 더 이상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는 죄악 된 이스라

엘에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유다 나라를 강성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마음을 오로지하여 주님을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 견고히 세우시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오로지하여 주님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않습니다(마6:24). 결코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대상 12:33; 약1:8). 그들은 오직 한 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성경 역대하 11장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마음을 오로지하여 하나님을 구했던 자들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남쪽 유대 나라로 레위 사람들과 함께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릴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멋대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세우시사 교회를 강성케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요4:2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자를 세우사 교회를 강성케 하십니다. 비록 르호보암은 장관을 세우고(대하11:11) 유다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고 모든 성읍을 심히 강하게 하였지만(12절) 하나님은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자를 세우사 유다 나라를 강성케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교회를 강성케 하시고자 마음을 오로지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자들을 세우십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성경 역대하 13장 11절을 보십시오: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오로지하여 하나님을 구했던 자들은 예배자들이요 또한 예배의 합당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여기

서 예배의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11:17). 여기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는 말 씬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삶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 는 삶입니다.

교회를 강성케 하시는 주님은 바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바른 예배자 를 통하여 교회를 강성케 하십니다. 바른 예배자는 바른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바 른 삶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통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강성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

“그 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역대상 12장 22절).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의 교회(Triumphant Church)요 동시에 전투하는 교회(Militant Church)입니다. 천상의 교회를 승리의 교회라고 말한다면 현세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전쟁을 해야 합니다. 대장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로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성경 역대상 12장 22절을 보면 성경은 “그 때에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는 말씀은 군인의 숫자가 많을 뿐 아니라 그 군대가 질적으로 우수하여 잘 단합하며 순종하는 것이 마치 천군, 곧 천사의 무리와 같음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다윗의 큰 군대를 생각할 때 한 5 가지 적용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다윗의 큰 군대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역대상 12장 16-18절을 보십시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 때에 성령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

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 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한 사람들 중에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 온 30용사들이 있었습니다(18절).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동족이었습니다(2, 29절). 그러므로 다윗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과 유대 자손 중에서”(16절) 그에게 나온 30명 용사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17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30명 용사의 우두머리인 아마새를 마치 못 입히듯 그를 완전히 주장하사 이렇게 말하게 하셨습니다(박윤선):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 이다”(18절). 왜 아마새와 나머지 29명의 베냐민과 유다 지파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있겠다고 헌신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시사 다윗을 돕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18절). 그러므로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습니다(18절).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하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뢰할만한 용사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서로를 신뢰하는 사람들이길 기원합니다. 오직 대장되신 주님을 신뢰하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도우실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다윗의 큰 군대는 싸움을 준비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성경 역대상 12장 23-24절을 보십시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와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대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육천팔백 명이요.” 다윗에게 돌아와 돕고자 한 사람들은 싸움을 준비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군인의 자격을 구비한 자들이었습니다(박윤선). 누가 군인의 자격을 구비한 자들입니까? 바로 훈련 받은 군인들입니다(박윤선). 다윗의 큰 군대는 훈련 받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하는 우리 교회는 훈련 받은 십자가의 군사들로 가득차

길 기원합니다. 오직 대장되신 주님께 훈련을 잘 받아서 영적 전쟁에 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다윗의 큰 군대는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성경 역대상 12장 8절을 보십시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한 사람들 중에는 갓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추격하는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많은 용사들이 사울 왕의 악한 정책을 피하여 다윗을 찾아 왔었는데 한 때에는 그 숫자가 600명에 이르렀었습니다(삼상22:2, 23:13)(박윤선). 그런데 그 용사들은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대상12:8). 즉, 그들은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하는 우리 교회는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로 가득차길 기원합니다. 오직 대장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되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로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승리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다윗의 큰 군대는 일편단심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역대상 12장 33절을 보십시오: “스블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오만 명이요.”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한 사람들 중에는 스블론 지파 중에서 5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다(undivided loyalty)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3절). 즉, 그들은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편단심으로 다윗을 좇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하는 우리 교회는 마음이 나뉘지 않고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차길 기원합니다. 오직 일편단심 대장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여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다윗의 큰 군대는 성심과 한 마음으로 다윗을 지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역대상 12장 38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한 사람들인 “모든 군사”는 344,022명이었는데(박윤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은 “다 성심으로”(fully determined) 그리고 “다 한 마음으로”(one mind)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8절). 즉, 그 모든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완전히 결심하고 다윗을 지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하는 우리 교회는 한 마음으로 완전히 결심한 사람들로 가득차길 기원합니다. 오직 대장되신 주님만을 좇기로 완전히 결심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는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단과 싸우는 교회입니다. 싸우되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 이름 그대로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계십니다(참고: 마 16:18).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더욱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용사들로 그리고 싸움을 준비하여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로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사 오직 일편단심 대장되신 주님께 충성하며 성심과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1.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기 들고 앞서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2.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그 나팔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3.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해 일어나 네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4. 십자가 군병들이 주 위해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와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찜이며 요단야 네가 물러감은 어찜이고 너희 산들아 수양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 같이 뛰놀은 어찜이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시편 114편).

여러분, 교회의 참된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5 가지 원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 5 가지를 우리 교회가 실천하므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원리란 (1) 기도하는 교회, (2) 성령 충만한 교회, (3)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 (4) 주님께서 믿는 자를 더하시는 교회, (5)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4편 2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와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유다”를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곳에 모여 제사를 드리며,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와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곳에서는 큰 절기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의 성소”는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소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인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러

한 공동체가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는 구원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성경 시편 114편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언 다른 민족”, 즉 야만민족인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던 사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박윤선).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의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신명기 7장 7-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뤄집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심으로 그들의 열조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로 교회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입니다. 실제로 “교회”란 헬라어 단어인 ‘ekklesia’(에클레시아)란 말은 “ek”(out of) + “kaleo”(call)이란 합성어입니다. 즉, 교회란 ‘부름을 받아 나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택하셨습니다(엡1:4).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5절). 그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고자 애굽과 같은 사탄의 왕국에서 교회를 구원해주셨습니다(6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즉,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구원을 소망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성경 시편 114편 2절을 보십시오: “유다는 여호와와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성소”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 가운데 임재 하시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느끼고 체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위기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시편 114편 2절에서 애굽에서 해방된 유대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사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였고 또한 광야에서는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박윤선).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1, 2절)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14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1:23).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어두운 세상에 보이기 위해선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믿음,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의 능력을 여러 번 나타내셨습니다.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시114:8). 또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셨으며 또한 약 40년 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까이 와서 요

단강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3, 5절). 하나님의 권능 앞에선 바다도 갈라져 육지 같이 되었고 반석에서도 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선 자연계도 진동한 것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시편 114편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찌어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 받은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공동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 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시편 99편).

언제가 새벽 기도회 때 시편 126편 5-6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생하며 역경을 이겨 나아갔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1절).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낙망

하고 절망할 때에라도 우리의 소망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정을, 직장과 사업을, 교회를, 사회를 등등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도 않으시고 또한 포기하실 수도 없으시다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꿈을 꾀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또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이 시편 126편 말씀을 받았습니다. 즉,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낙망과 절망의 상태까지 갈지라도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된 꿈을 가진 기드온의 300명 군사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파송하는 꿈을 계속 꾸고 싶습니다. 찬송가 542장 1절과 후렴이 생각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보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후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보오리라.”

저는 성경 시편 99편 1-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란 제목 아래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한 3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에는 떨림과 찬송 및 경배가 있습니다.

성경 시편 99편 1절, 3절, 5절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 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 도다 ...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 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 도다 ...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 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 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땅은 요동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3x)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삼대 목표는 (1) 주님을 모시는 교회, (2) 주님을 닮는 교회 그리고 (3) 주님을

높이는(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높이는(자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찬송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피조물은 조물주이신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찬송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피조물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롬1:25).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경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함을 거부하는 이 죄악된 세상은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거부하는 종교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집단의 지도자를 신격화하여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며 숭배하는 죄악이 교회 안에서도 행해져서는 아니 됩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그에 마땅히 찬송과 경배를 올려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99편 4절을 보십시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의가 바로 힘이라는 귀한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박윤선). 이 원리는 교회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의 힘(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곧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능력이 없고 무능력하게 세상에 비취지고 있는 이유는 공의를 사랑하지 않고 공평을 견고히 세우지 못하고 공과 의를 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어그러진 세상에 살면서 공과 의를 행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힘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 세상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영향력 상실 원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우리 교회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미가 6장 8절을 보십시오.

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주님의 요구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편 99편 4절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며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교회를 통하여 공평을 견고히 세워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는 기도합니다.

성경 시편 99편 6절을 보십시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구약의 교회를 대표할 만한 모범적 인물 세 사람인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 사역의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박윤선). 그 원칙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모세, 아론, 사무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출17:11; 민16:43; 삼상7:8, 9; 9:12)(박윤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시편 99편 7-8절에서 시편 기자는 기도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에 대해서 한 2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9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기에 공정한 판단과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9편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며 주께서는 저희에

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 이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징계하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기에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역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을 통하여 이뤄집니다.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되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우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기도자로 세우시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에는 떨림과 찬송 및 경배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는 기도합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길 꿈을 꿍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얻는 교회

“나 여호와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예레미야 31장 2절).

여러분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광야”하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고자(히4:8)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40년간 걸었던 광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는 곳(민21:5)으로서 불신앙과 불만족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광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반석을 쪼개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을 흡족히 마시우게 하시며(시78:15)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그들에게 풍족하게 주시는(23-25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장소였습니다. 그 광야는 원망하며 욕심을 크게 발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tempted) 이스라엘 백성들에게(106:14)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다가도(민32:10)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야 하면 찬송가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저는 광야란 근심됨과 곤고한 일, 최악 된 일이 쌓인 세상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 죽을 일도 쌓인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슬픔과 눈물을 많이 봅니다. 이러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는 바로 “안식”(rest)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칼에서 벗어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같은 바벨론에서 은혜를 얻었는데 그 은혜는 바로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안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만이 슬픔과 근심이 많은(13절) 광야와 같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 3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자함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예레미야31장 3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옛적에도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사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바벨론의 칼에 살아남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인자함으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 모으시사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8절).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고 간구하였습니다(9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 하소서”(7절). 그리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속(속량)하셨습니다(11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행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9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니이다”(18절)라고 간구하였을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사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1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시78:52). 그 주님은 우리는 애굽과 같과 바벨론과 같은 사단의 왕국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 내시사 지금도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23:2). 바로 이 주님이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48:14). 그러므로 우리는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인자 하심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혼의 안식을 누리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31장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우리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훼파한 예루살렘 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만을 가리켰을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4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녀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긴 영적 간음자들 이었습니다(18:13, 15).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므로 말미암아(31:34) 옛날에 순전한 처녀였던 그대로 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전한 처녀로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다시 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폐역 하여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22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사(23절) 그들을 세우며 삼으시겠다(28절)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와 성지”로 삼으시사 “영영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40절).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퉁이 돌이 되시는 주님은 그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마16:18)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취해 나아가시되 주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계십니다(엡5:27). 주님께서 우리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사(27절)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부된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청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계19:9).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인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삼으

시키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온에 올라가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31장 6절과 1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시사(11절) 그들로 하여금 시온에 올라가서(6절) 하나님께 나아가 기뻐 노래하며 찬양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7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하시므로(13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14, 25절) 슬픔 심령을 상쾌케 하므로 (25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 받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시온의 높은 곳에 와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물댄 동산 같게 하시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12절).

교회의 신랑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돌이켜 기쁨이 되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물댄 동산 같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교회의 “장래의 소망”(17절)이 되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히4:1, 9).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더하시는 교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4-47절).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보다 오히려 칭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위적으로 세상 방법들을 다 도용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와서 교회 빈자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더하십니다. 더하시되 주님께서 “구원 받는 사람”들을 교회에 더하십니다(행2:47). 그러면 주님께서 더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첫째로, 주님께서 더하시는 교회는 4가지 일에 전혀 힘씁니다.

그 4가지 일이란 바로 (1) 하나님을 말씀을 배움에 전혀 힘쓰고, (2) 성도가 서로 교제하기를 전혀 힘쓰며, (3) 함께 성찬에 전혀 힘쓰며, 그리고 (4)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42절).

둘째로, 주님께서 더하시는 교회는 성도의 교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한 2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나누는 교회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44-45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재물 공유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교인들이 모두 각자의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납한 후에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동 분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재산 공유가 각 성도들의 사유 재산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교회내의 성도들 가운데 궁핍한 문제가 간헐적으로 제기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부동산(재산)이나 동산(소유)을 팔아 처분하여 이러한 필요를 해결했음을 보여줍니다(유상섭). 예루살렘 교회 내에 모든 사람이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있는 자들 중에서 모두가 다 기증한 것도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기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내의 궁핍의 문제를 다른 성도들이 감당했습니다.

(2)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금 말로 한다면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교회에서나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진정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초대 교회 성도들은 성전에나 집에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a) **첫째로, 그들은 집 집 돌아가면서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식탁 교제를 하였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십시오: “...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과 더불어 교인들끼리 음식을 나누는 식탁교제를 하였습니다(유상섭). 그리고 이 식탁 교제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역 모임과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중심된 식탁 교제를 나누므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달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공동체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b)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중심된 식탁 교제를 나눈 후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일 때에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찢려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300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전혀 힘쓰며 또한 성도의 교통을 나눴습니다. 그리했을 때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온 집”이 이제 예수님의 믿는 제자들의 공동체에 호감을 갖고 보면서 그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 된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전혀 힘쓰며 성도의 교통을 추구하므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과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1)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앎이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들어가니라” (사도행전 16장 1-5절).

언젠가 교회 지도자 성경공부 시간 사도행전 4장 공부를 통하여 주신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은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주님의 교회(본문에선 초대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패턴(pattern)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의 패턴을 한 5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패턴의 명칭: “위에서 아래로 방법”(Top to Bottom Method)]: (1) 기도(31절, 참고: 1:14-15), (2) 성령 충만(8,31절), (3) 복음전파(8-12절), (4) 믿는 자가 많아짐(4절, 참고: 2:47), (5) 사랑 공동체(32-37절). 그런데 놀란 것은 그 패턴과 현 시대 우리 교회들이 세워짐의 패턴이 정반대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반대 세상의 방법을 “아래에서 위로방법”(Bottom to Top Method)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교회:

주님의 방법의 우선순위에서의 첫 번째는 기도지만 세상 방법은 교회란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자 노력한다고 하지만 요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여러 마음과 여러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교인 숫자

세상적인 두 번째 방법은 교회 숫자 증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 받는 사람들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양 도둑”이란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수평 이동이요 양 도둑질로 말미암아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인들의 이름을 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는 않는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전도/선교

세 번째 방법은 마지못해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4) 성령 충만

네 번째 방법에 가서야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가 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방법에선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함도 과연 성경적인지 감정적인지 신비스러운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5) 기도

이 기도조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주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자세로 상황과 느낌과 우리 생각에 치우쳐 부르짖을 때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의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 말씀 중심으로 “믿음과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란 제목아래 우리 교회가 믿음과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가 믿음과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선 후(15:39) 실라와 함께 제1차 선교지인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였습니다(41절). 그런 후 그들은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16:1).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바울의 1차 선교 사역 중에 날 때부터 전혀 걸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놀라운 기적을 행한 곳입니다(14장). 그 결과로 인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으로 오인하여 그들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려 했던 대소동이 있었던 곳입니다(유상섭).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이방인들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형성하는 이교 중심의 도시로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시사 그들의 제1차 선교 사역 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이적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난 후 바울이 실라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왔을 때, 이 이방인 도시에 소수의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수의 믿는 유대인들 중 바울이 만난 새로운 인물은 바로 디모데라는 제자였습니다(유상섭). 이 디모데란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말로 하면 혼혈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16:1). 즉,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 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Eunice)로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인 로이스(Lois)처럼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sincere faith)이 있었는데 디모데도 그의 외조모 로이스나 어머니 유니게처럼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그에게 어울립니다. 그의 이름 “디모데”는 “하나님의 보배”란 뜻입니다(박윤선).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영어로 “sincere faith”이라고(NIV)적혀 있습니다. 즉,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신실한 믿음, 위선이 없는 믿음, 가짜가 아닌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 우리는 로마서 4장 18-21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아브라함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니다(18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아내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 속에서도(19절) 약 25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의 의학적인 불가능한 상황을 초월한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바랬던 믿음이었습니다.

(2) 아브라함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었습니
다.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3) 아브라함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히려 믿음이 견고
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습니
다.

20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4) 아브라함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
다.

21절을 보십시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붙잡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은 나 이야기라 폭포를 아실 것입니다. 1860년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곡예사 불론딘이 이 이야기라 폭포 위에 밧줄을 매고 외줄타기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인 1859년부터 나 이야기라에서 외줄타기를 시도한 불론딘은 그해 8월에는 그의 매니저(manage)였던 Harry Colcord를 그의 등에 업고 외줄타기에 성공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불론딘의 줄타기를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무섭게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 위로 50m 정도의 높이에 300m 정도의

밧줄을 매어 놓고 밧줄타기를 시도하려는 그의 주위에, 신기에 가까운 그의 외줄타기를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블론딘, 블론딘” 하면서 환호하였습니다. 그러자 블로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 폭포 위로 매어 놓은 줄을 타고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자 군중들은 “물론이지요!”라고 하면서 블론딘의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은 “그렇다면 제가 제 등에 한 사람을 업고 이 밧줄을 탈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자 역시 군중들은 “물론입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은 군중을 향하여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저를 믿으신다면 아무라도 좋으니 이리로 나오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자원하여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군중들은 블론딘을 믿는다고 하였으나 그들이 믿는 믿음은 결국은 위선이었고 가짜였다는 것입니다”(인터넷).

믿음과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2)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앎이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들어가니라” (사도행전 16장 1-5절).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2007년7월25일)에 미로슬로브 볼프(예일 대학교 헨리 B. 라이트 석좌교수 · 신학) “특집/ 남들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라는 제목 아래 기사가 실려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복합적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인종이나 문화나 종교가 다르다고 서로 배타적이면 긴장관계를 자아내므로 그저 남남으로 살면서 갈등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에서 “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자는 한 4가지로 제안하였습니다:

- (1) “서로를 포용하려는 의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남들을 나의 축소요인으로 생각하기보다 나를 풍요롭게 해줄 잠재력으로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입장 바꿔 보기.” 서로 포용하려는 의지를 실천하며 살기 위해선 관점의 역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들을 볼 때 그들 자신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들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상호 개입.” “상대가 어떻게 이해되기를 바라는지 또 상대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내가 이해하고 나서는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서로 합의해야 할지, 그냥 불일치로 남아있을지 판단해야 한다. 여기가 바로 토의적 상호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4) “남을 포용하기.” 기독교인들은 순수 혈통이나 국적, 문화, 종족을 초월하여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른 세 사역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주님 안에서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글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사역 식구들이 서로 포용하려는 의지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노력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다 완전히 우리가 일치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하면서 상호 개입의 필요성을 무시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젠 더 이상 “남”이 아니라 “서로”라는 개념아래 서로를 포용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데 준비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믿음과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sincere faith)(딤후1:5), 즉, 진실한 믿음, 위선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예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4 가지로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1)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롬 4:18). (2)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연약해 지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19절). (3) 그의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습니다(20절). (4)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21절). 오늘은 우리 교회가 믿음과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은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가 믿음과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칭찬 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십시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 즉, ‘기독교 신자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어떻게 디모데는 그 두 지역 형제들에게 칭찬(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참된 제자도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의 제자였기에 주위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주님과 함께 행하면서 배우고 순종하며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신앙과 행위 속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으로서,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자기가하는 모든 일을 그러한 목적에 맞추어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기독교 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에게나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디모데처럼 신실한 신자들에게는 칭찬을 받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귀의 무리에게 칭찬을 받을 때엔 그 자신이 마귀가 되어가는 줄 알고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신자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영광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박윤선). 지혜자는 잠언 2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디모데처럼 칭찬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칭찬 받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의 교회’입니다(행11:26). 바나바는 사울(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는 큰 무리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철저히 시켰을 때(26절, 유상섭) 그 결과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질적으로 놀라운 성숙에 도달하므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비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잘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좇았으면 주위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병폐는 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되지 못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것은 교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 교회 회중들의 낮은 영적 수준의 이유가 된다.” 우리는 결코 낮은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고 권면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1절).

마지막 셋째로, 우리 교회가 믿음과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4절을 보십시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하니.”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의 선교 사역에 동참시키고자 하였을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리고 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3절). 그 이유는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 이였기 때문에 디모데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유대인 선교 사역에 방해(문제)가 될 것으로 바울은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3절)(유상섭). 이것은 결코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율법주의 적이며 바리새파 적인 믿는 유대인들의 주장인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주장에 굴복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방편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할례를 베푼 이유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행한 것뿐입니다(유상섭).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9장 19-2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 그는 사람들 구원코자 한 것입니다(22절).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사람을 얻고자 하였습니다(19절). 유대인에게는 바울은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였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20절).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였습니다(23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후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여러 성을 돌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내린 결정을 준수하도록 권면했습니다(행 16:4). 그 결정은 이방인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15:20, 29). 그 규례는 2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제1차 선교지를 두루 다니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규례를 그 지역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어 지키게 한 이유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의 화목 때문이었습니다(박윤선). 아마도 그 당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재방문하였던 1차 선교지 교회들 안에서 다수의 이방인 신자들과 소수의 유대인 신자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유상섭). 그러기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교회의 다수인 이방인 신자들로 하여금 소

수의 유대인 신자들을 배려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 볼 때에 우리 다수의 한국어 사역 성도님들이 소수의 영어 사역 식구들과 히스패닉 사역 식구들을 배려하여 화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배려할 때에 서로의 화목을 위하여 삼가야 할 것은 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사역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우리 한국어 사역이 삼가야 할 것은 그들을 어린아이들 취급을 해서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손자들이며 나이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리고 할지라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히스패닉 사역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 우리 한국어 사역이 그들을 다 “Mexican”(멕시칸)이라고 부르면서 흑어나 남미 사람들을 향한 편견이나 선입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서 내어 버린 후 그들을 주님의 순수한 사랑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우리 세 사역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지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우리 교회 세 사역 식구들은 서로 사랑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에게 배우고자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며 서로를 향하여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세워주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화목케 하는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화목케 하는 자들’(peacemakers)이 돼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화목을 지켜나아가는 자들’(peacekeepers)이 돼야 합니다.

유명한 성경 교사이며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섬김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 손가락 하나로 오라 가라 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로 기준을 삼는다. 또는 지적인 수준과 학문적인 탁월함, 임원을 맡고 있는 모임이 몇 개인지를 따지기도 한다. 또 많은 이들은 은행 잔고와 자산과 물질적 소유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위대함을 가능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리는 평가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주님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한 가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 가다. 그 속에 위대함이 있다"(인터넷).

주님이 세우시지 않는 교회

“저희는 여호와와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시편 28편 5절)

언젠가 심방목사님과 점심을 하러 가는 도중에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었던 한국 식당이 지금 유사한 이름을 지닌 다른 식당을 법정에 고소한 상태라는 말을 심방 목사님을 통하여 듣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아니, 그 식당도 교회하고 별 다를 바가 없네요’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말하고 나서 생각하고 보니 어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식당처럼 교회가 법정에 고소를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닌 교회처럼 세상의 식당이 법정에 고소하고 있다는 말을 했으니 참으로 어색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무의식적 발언 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식사하러 가기 전에 어느 한 기독교 웹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이민 대형교회 중에 하나인 모 교회의 ‘... 분열이 아닙니다’라는 글과 그 글의 답변 글들을 보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교회 안에 문제가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친 귀한 헌금들이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나 신문 광고비로 등등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친 헌금이 남용되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의 이러한 큰 문제점들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러한 교회들을 주님께서 세우실까 하는 생각도 두려운 마음으로 듭니다.

성경 시편 28편 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건설치(세우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시편 28편 3절과 5절 중심으로 한 2 가지 생각해 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교회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경 시편 28편 3절을 보십시오: “...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주님이 세우시지 않는 교회는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차 있는 교회입니다. 입술로는 ‘화평’을 말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파괴”(tear them down)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5절). 지혜자는 잠언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입술로만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좁게는 한글 사역 식구들 가운데서 입술로만 화평을 말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화평을 깨는 자의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좀 더 넓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한글 사역 식구들이 히스패닉 사역 식구들을 입술로는 한 교회 한 식구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을 무시하며 차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입술은 달콤한데 마음은 쓰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참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된 사랑은 상대방을 세울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대방을 무너뜨립니다. 지혜자는 잠언 26장 23절에서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한글 사역이 ‘어머니 사역’(mother ministry)이 돼야합니다. 그 말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어사역과 히스패닉 사역 식구들을 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치 자식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무조건 품고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우리 한글 사역 식구들은 영어사역과 히스패닉 사역 식구들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말로만 “화평”(peace)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자들(peacemakers)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벽들을 허물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세상에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생각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경 시편 28편 5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여호와와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만일 우리 교회 식구들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지금도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처럼 “...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의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성취해 나아가실 때에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역사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나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부터 “틈”을 보여주시면서 무너트릴 것은 무너트리시면서 다시 견고하게 세워 가시는 주님의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역자들이나 영어사역 지도자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세워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마16:18).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해야하며 또한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을 입술로만 사랑하며 화평케 하는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도 교회를 결코 세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계심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겸손히 받고 잊지 않는 가운데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에 다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승리!

주님이 건설치 아니하시는 교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끝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의 지은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함이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시편 28편).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약속하신 대로 세우고 계심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계십니까?(마16:18)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8절인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란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계심을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성경 시편 28편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주님이 건설치 아니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를 한 3가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책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출판되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성장학에 관심

이 많은 때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지 않는지 대조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3 가지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건설치 아니하시는 교회는 주님을 반석으로 삼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경 시편 28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반석으로 삼지 않는 교회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주님을 반석으로 삼았기에 극악한 원수들로 말미암아 극도의 비참한데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박윤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사실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 다윗은 그가 처한 극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8,9절)이 없으면 자기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였기 때문입니다 (1절). 다윗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지 못함을 사망과 같이 여긴 것입니다. 즉, 다윗은 기도 응답을 생명과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박윤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주님을 반석으로 삼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서 기도를 생명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2절). 다윗은 주님의 성소를 향하여 간구하는 가운데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함이어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주님이 세우시지 않는 교회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기에 기도 응답 또한 없을 것이기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세우시지 않는 교회는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고 주님께 부르짖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을 의지하여 그에게 간구하므로 주님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건설치 아니하시는 교회는 말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경 시편 28편 3절을 보십시오: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끝지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과 행악하는 자”는, “보통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써도 용납하실 수 없는 극악 자들을 말”합니다(박윤선). 이러한 극악 자들로 말미암아 수난을 당하고 있었던 다윗은 그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다윗은 “자기의 종말이 악인들의 종말과 같아지지 않기를 간구하였습니다(3-5절)(박윤선). 이 악인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것입니다(3절). 한 마디로 말하면,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은 위선자들입니다. 말로는 화평을 부르짖지만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행위와 악한 대로 갚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길 다윗은 간구하였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의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이 악인들, 즉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여호와와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 하시리로다.”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기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도 않고 또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마음에 일치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윗처럼 주위에 위선 자들로 가득하여 말로는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면서 마음에는 악독을 품는 이러한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3절).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처럼 마음에 악독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거짓말로 “화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6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처럼 크게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7절). 우리 교회는 언행이 일치돼야 하며 또한 마음 또한 사랑으로 계속 채워져야 합니다. 결코 마음은 악독이 가득하면서 말로는 ‘평화로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에 성령의 열매 사랑이 더욱더 맺어져서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이 건설치 아니하시는 교회는 주님을 목자로 삼지 않는 교회입니다.

성경 시편 28편 9절을 보십시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다윗은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은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9절). 이 기도 내용 중에 하나는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였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시사 마치 목자가 양을 앓아 들고 날라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날라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은 주님을 목자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지도 아니하기에 목자의 인도하심이나 보호하심 등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지 않는 성도는 주님께 세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지 않는 교회는 주님께서 건설치(세우시지) 않으십니다. 마치 집을 지려고 하면서 건축자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퉁이 돌이 되시는 주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자 되심을 거부하는 악인들과 행악 자들은 그의 인도하심 또한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목자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도자 일꾼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대로 또한 신앙생활 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과연 주님께서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지 의심 가운데 흔들리는 제 마음을 보면서 주님을 다윗처럼 “나의 반석”으로 삼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을 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기보다 의심하는 가운데 기도응답의 확신조차 없어 마음의 찬양조차도 없을 때가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언행일치 하지 않으며 말과 달리 마음은 온갖 죄악 된 생각 속에서 생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모습을 봅니다. 또한 주님을 목자로 삼는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음성조차도 분간을 못하고 들어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딤후3: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미쁘시사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대로 신실하게 세우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하면 우리 교회 지도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확신이 드는 것은 사탄은 교회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은 지도부를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 계셨음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사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주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앗고 나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반석으로 삼고 의지하여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를 찬송케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는 교회가 되어 합시다. 우리 교회는 마음과 말과 일치하는 교회가 돼야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을 목자로 삼는 교회가 돼야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건설하시니(세우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1-4절).

새들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릭 원레 목사님은 이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21세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 건강이다. 교인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1) 교회는 친교를 통해 더욱 따스하게 성장할 필요가 있고, (2) 제자직을 통해 더욱 깊어지며, (3) 예배를 통해 더욱 강건해지며, (4) 사역을 통해 더욱 넓어지며, 그리고 (5) 전도를 통해 더욱 크게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숫자보다는, 사역과 선교를 위해 동원되는 교인들의 퍼센티지가 그 교회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보다 정확한 척도’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저는 “건강한 교회”라는 말보다 “교회다운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다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한 마디로, “교회다운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42-43절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를 한 4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 전혀 힘씁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3000명, 그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로서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열심히 배웁니다. (2) 교회다운 교회는 서로 교제하기에 전혀 힘씁니다. 교제란 한 마디로 함께 나누는 것(공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분유)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공유하며 분유하므로 서로 돕습니다. (3) 교회다운 교회는 성찬에 전혀 힘듭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4)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각종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120문도의 기도(1:14-15)를 본받아 3천 명으로 확장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헌신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교인들의 수적인 성장은 곧 기도하는 사람들의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는데 헌신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4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make my joy complete)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지를 한 4가지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4 가지 교훈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란 제목 아래 우리 교회가 이 4 가지 교훈을 겸손히 받아 순종하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 여러분, “권면”이란 무엇입니까? 네이버 사전을 보니깐 한국어로 “권면”하면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네이버 사전). 그런데 원어인 헬라어로 “권면”이란 “간곡한 권고, 장려”(exhortation), “격려”(encouragement), “위로”(comfort)란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 나오는 “권면”이란 단어의 뜻은 ‘신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며 확고히 하는 목적으로 간곡히 권고(장려)(exhortation)하던지 책망(경고)(admonition)하던지 또는 격려(위로)(encouragement)하는 것을 의미합니다(Zodhiates).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외에도 그의 편지에 여러 번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후서 8장 4절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면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구하는 것(urgently plead), 즉 그가 간곡히 권고하는 것(exhort)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같이하라’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미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말한 것처럼 “한 마음”(one mind)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간곡히 권고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1:27). 그런데 불행하게도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두 여인들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1:27), ‘마음을 같이하십시오’(2:2)라고 온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4장 2절에 와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게란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두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간곡히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3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보면 그들 가운데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던 원인은 바로 허영심(vain conceit)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허영”이 무엇입니까? 네이버 사전을 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겉치레”(네이버 사전). 만일 교회 안에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민수기16장에 나옵니다. 레위 사람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란 사람들이(민16:1) 먼저 당(파)을 짓고(1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이백 오십인”(2절)을 포섭하여 함께 일어나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거슬렀습니다(2절).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한 말은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이었습니다(3절). 그들이 모세에게 주장한 것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였습니다(3절).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먼저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16:4). 그리고 그는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고 면책하였습니다(7절). 그런 후 모세는 고라와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와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어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고라와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고 회중을 대신하여 그

들 앞에 서서 섬기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귀한 직분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게 여기고 “오히려” 아론과 같이 제사장 직분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고라와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므로 말미암아 주제넘게 생각하여 분수에 지나치는 말을 모세와 아론에게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와 아론만 거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거슬렀습니다(11절). 그 결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던 고라와 그 모든 무리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33, 35절). 여러분, 우리는 분수에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수에 너무 지나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빌2:3).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직분을 작게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구별하여 섬기게 하신 직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겁게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마음을 같이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간곡히 권면하였는데 여기서 바울이 염두해 두고 있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성경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바울이 염두해 두고 있는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humility)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은 ‘나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consider others better than myself)(3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도 더 좋고 신앙생활도 더 훌륭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나 자신보다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로마서5장 20절 하반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즉,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겸손히 고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고전15:9). 실제로는 사도 바울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고후11:5; 12: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고전15:9). 그런 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 그러다가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 죄인 중에

괴수니라”(딤후1:15하).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지면 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갈5:13). 그리할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롬12:10).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간곡한 권면을 듣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겸손한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하는 말을 들어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에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새찬송가 212장, 1절).

둘째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는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절실히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때에 어쩌면 우리는 가까운 가족 식구나 친구들을 의지하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며 쏟아내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가까이 다가가도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낯선 사람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시편 69:8). 심지어 우리는 그들에게 이해를 받고 위로를 받기보다 오히려 더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민수기 32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입니다. 어떻게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을 낙심시켰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인 다른 10지파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러 가지 않고 목축할 만한 장소(1, 4절)인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1절) 거주하길 모세에게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5절).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하소서”(5절). 그 말을 들은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6절)고

책망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7절)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나머지 10지파 형제들을 낙심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9, 14절). 그들의 조상들은 10명의 가나안 땅 정탐꾼들의 악평(13:32, 14:35, 36)하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켜(신1:28) 그들로 하여금 방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민 14:1). 결국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조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만 낙심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의 보고(“악평”)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낙심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이스라엘 전 공동체 책임을 망각하고 자기들만 생각한 이기적인 욕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를 낙심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조상들처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켰는데 그 원인은 한 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참고: 24절).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낙심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불신하면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낙심케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낙심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낙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듯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 사랑의 무슨 위로나 ...”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사랑의 무슨 위로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쓰여 있지만 영어성경에는 “his love”(그 분의 사랑),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빌립보서 1장 30절에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때문에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고난(29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28절)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간곡히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경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

지라(having the same love)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빌립보 교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현대인의 성경)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기 위해선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권면의 말씀은 우리의 이웃 사랑이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의 일을 돌보되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지 말고 서로의 이익을 구하므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란 사람과 순두게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일만 돌본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며 행동하고,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봉사한다면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결코 그러한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유명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it is not self-seeking)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사랑”(빌2:2)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라는 것은 곧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요?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돌봄의 영성”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돌봄’(care)이란 말의 어원인 ‘kara’라는 단어는 ‘슬퍼하다, 애통하다, 고난에 동참하다, 고통을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돌봄이란, 병들고 혼란스럽고 외롭고 고립되고 잊힌 사람들과 함께 부르짖는 것이다. 즉 그들의 고통이 내 마음속에도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돌봄이란, 깨어지고 무력한 사람들의 세상 속에 들어가 그곳에서 연약한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또한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주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계속 같이 있어주는 것이다”(나

우웬). 여러분, 이러한 돌봄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본다면 얼마나 서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무슨 위로”(if any comfort from his love)란 말에 대해서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의하면 “위로”(comfort)란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이렇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신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녀의 귀에 온화한 응원의 말들을 속삭이시던지 부드러운 조언의 말을 하신다’는 것을 묘사한다[The Greek word translated “comfort” portrays the Lord coming close and whispering words of gentle cheer or tender counsel in a believer’s ear(MacArthur)].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위로하려고 할 때 그 형제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귀에다가 온화한 응원의 말을 하던지 또는 부드러운 조언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 사도행전 15장 35-41절 말씀 중심으로 “위로의 사역”이란 제목 아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위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한 3가지로 묵상했었습니다. (1) 우리가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2) 우리가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는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1차 선교지 재방문 여행에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로 인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주님을 향한 열심도 잘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통솔되지 못할 정도로 탈선되면 안 됩니다(칼빈). (3) 우리가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는 교회를 굳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굳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할 때에 교회는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위로의 사역입니다. 이 위로의 사역을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잘 감당할 때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는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 영어사역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들에게 왜 대학교만 가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그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한 형제는 교회를 한번 두 번 안 나오기 시작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형제는 어쩌면 교회 안에 ‘socializing’(사교)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영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가 바로 “fellowship”(친교/친목)이었습니다.

웬지 그 형제는 사교와 친교/친목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회 안에서 남용되고 있는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fellowship)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남용되는가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교제”를 무슨 “활동”(activity)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제는 활동이 아니라 “관계”(relationship)입니다(Jerry Bridges).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수직적인 교제)를 통하여 관계를 세워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교제(수평적인 교제)를 통하여 관계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2장 42절을 보면 초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였다 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교제”란 헬라어 단어인 “코이노니아”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공유). 둘째 의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분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도간의 교제는 단순히 사람들과 음식을 먹으며 재미있는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무슨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게임을 한다거나 단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거둬나기 이전에도 해왔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나눔 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운 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다른 성도의 어려움을 중보 기도하는 것” “자신의 소유물을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제”란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 “그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제”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성령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약 3000명 새로운 성도들이 함께 공유했던 것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교회는 성령의 교제에 헌신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교제는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일치와 단결을 이룬 인본주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중심과 핵심이 되는 성령의 교제 공동체였습니다(유상섭).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 성령의 무슨 교제나 ...”(if any fellowship with the Spirit).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교제’를 하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목적은 바로 교회의 통일성/일치(unity)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고(고전12:4), 다양한 직분이 있으며(5절) 또한 다양한 사역이 있지만(6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11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되(18절) 특히 하나님께서는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24-25절).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엡4:3).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까? 성경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뜻을 합하”라(united in spirit)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문자적 의미는 ‘한 영혼’으로서 사람들이 같은 의욕과 같은 열정과 같은 야망을 가지고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It means “one-souled” and describes people who are knit together in harmony, having the same desires, passions and ambitions(MacArthur)].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뜻”이란 “의지와 의욕”(will and desire)을 가리킵니다(칼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 같은 의지와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뜻을 합하여” 함께 힘을 합쳐 서로 도우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다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성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각자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각자 자기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함께 추구한다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일을 협력하여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그레질을 해야 합니다. 영적 그레질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옥을 지을 때에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바로 주추를 놓는 일입니다. 여기서 주추란 기둥 밑에 괴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 주추를 다 놓으면 그 때서야 기둥을 세우는데 바로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기둥과 기둥을 잡아는 주는 일(창방)을 하며 집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주추 위에 기둥을 세울 때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레질입니다. 여기서 그레질이란 주춧돌은 보통 자연석을 쓰다 보니까 아무리 넓고 평평한 돌을 골랐다 해도 기둥을 바로 세우기가 어렵기에 주추 위에 기둥을 세우려면 주춧돌의 면과 기둥의 면이 잘 맞아 떨어지도록 하는 선 작업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레질입니다. 그레질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춧돌 위에 세워지는 기둥의 면을 주춧돌에 맞게 깎고 갈아 내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주춧돌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위에 세워지는 기둥의 면을 짊어 다듬어 주추에 맞추는 것입니다. 기준은 기둥이 아니라 항상 주춧돌입니다. 그리고 이 그레질을 잘하면 잘 할수록 집은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워집니다(인터넷). 저는 여기서 영적 그레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 그레질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반석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마7:24). 다시 말하면, 영적 그레질이란 우리가 그저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21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치 집을 지음에 있어서 기준이 기둥이 아니라 주춧돌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준은 바로 주님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 말은 마치 주춧돌이 기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둥이 주춧돌에 맞춰야 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우리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는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입니다. 그리고 표어 구절은 바로 빌립보서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금년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모(갈망)하여(빌1:8) 그들을 측은히 여기며(렘31: 20) 또한 그들을 시기하기 까지 사모해야(약4:5)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이웃을 항상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빌1:9-11).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빌1:5). 우리의 한 해를 뒤돌아 볼 때에 여러분은 과연 이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면서 그 이웃을 측은히 여겼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위하여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면서 긍휼이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이웃을 돌보아 주고 또는 도와준 적이 있는지요?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if any affection and compassion). 여기서 “긍휼”(affection)이란 단어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장”(affection)이란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로마) 옥

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있는 것처럼(1:8) 그들 또한 서로 그리스도의 긍휼로 서로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2:1). 성경 요한일서 3장 17-18절을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그냥 도와 줄 마음을 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말로만 ‘참 안됐네요. 불쌍하네요’ 등등 이라고 말하면서 말로만 도와주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이 형제들의 관계에서 더욱 깊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하며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고린도후서7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음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이 말씀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려움과 떨음으로 그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므로 그들을 향하여 디도의 심정(심장, 사랑, 긍휼)이 더욱 깊어졌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디도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회복되었다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13절). 즉, 디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위로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한 디도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위로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이 기뻐”하였습니다(13절). 그러면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비”(compassion)은 무슨 뜻입니까? “긍휼”이란 영어 단어로 “compassion”이며 라틴 어로는 ‘파티’(pati)와 ‘쿰’(cum)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며 ‘함께 고통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긍휼”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긍휼이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6:36).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한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구제하고(마6:2-4, 참고: 약1:27),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야 합니다(마18:35).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인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될 것이고(5:7),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구제하여(도와)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궁핍과 자비”(affection and compassion)에 대해서 말하는 목적은 궁핍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빌립보서2장 2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여기서 “한 마음을 품어”란 말은 원어인 헬라어로 한 단어인데 그 의미를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intent on one purpose”라고 번역돼 있는데 그 뜻은 ‘한 목적을 의도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빌립보서2장 5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Have this attitude in yourselves ...). 여기서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나 ‘마음의 틀’을 가리킵니다(Friberg).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목적을 삼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궁핍과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하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로나마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곡한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울의 권면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핍과 자비로운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사모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여 궁핍과 자비를 베풀므로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뉘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 권면이란 마음을 같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교제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뜻을 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궁핍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교회의 연합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편 133편).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향해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5:14).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인들이라면 교회 생활에만 집중하고 세상 속에서의 삶을 방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기사를 쓰신 안희환이란 참사랑교회 목사님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많은 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중에 몇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그 예로 헌혈입니다. 한국종교사회윤리연구소가 1998~2001년까지 종교별 헌혈 현황을 비교하였는데 개신교계 헌혈이 81.79%에 달했다고 합니다. 가톨릭 원불교 불교의 경우 각각 10.54%, 0.55%, 0.86%에 그쳤음을 볼 때 개신교의 헌혈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둘째로 장기 기증 혹은 골수 기증이라고 합니다. 골수 기증의 경우 2000~2002년 6월의 기록을 살펴보면 역시 개신교의 비율이 3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셋째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넷째로, 노숙자 지원 단체 운영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교회에 대한 평가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그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칭찬의 소리보다는 비난의 소리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를 안희환 목사님은 한 여섯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2 가지만 나눈다면 타락한 성직자들의 추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많이 알려진 큰 교회의 목회자들이 공금 횡령이나 간음죄를 범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교회의 분열상입니다(인터넷). 이러한 교회의 추한 모습들을 세상에 들어내므로 말미암아 이젠 안티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적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각 사이트별로 침입하여 개신교 흠집 내기에 열중하고 있는 안티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반기독교 시민연합이라는 단체는 회비를 걷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기

독교 박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교회가 더욱 더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욱더 추해질 것입니다. 그리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더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을 발해야 하며 또한 교회는 더욱더 교회의 아름다움을 추한 세상에 들어내야 합니다.

과연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133편 1절을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경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성경은 메시아(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예수님,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풍채도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의 현 주소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교회는 아무 끌릴 만한 아름다움(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회 자신을 바라볼 때 과연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은 있습니까? 저는 ‘아니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교회는 매력을 잃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나 우리가 보기에 매력을 느낄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보기에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십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아름답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빌2:8).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순종하시는 아들 예수님의 모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에 있다면 교회의 선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 대답을 로마서 8장 28절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선행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시편 34편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맛보아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만히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로서 선행을 행함으로 교회의 선함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good works)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 시편 133편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지으면서 주님 안에서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적인 형제들의 혈연에 의하여 뭉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박윤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곧, 이것은 주님의 교회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화목하며 교회의 연합(통일성)을 지켜 나아갈 때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의 연합된 모습을 보면 이렇게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며 손가락질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에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므로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갈 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그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통일”)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엡 4:3).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야합니다(16절).

성경 시편 133편 2-3절 상반절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하여 동거함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2 가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1) 다윗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절).

이 말씀은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은 “향기롭고 윤택미 있고 번지는 성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었을 때,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같이, 형제 사랑은 하나님이 부어 주셔서 퍼지는 사랑”입니다(박윤선). 성경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퍼지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2)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함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3절).

존 맥아더 목사님에 의하면 혈몬 산은 9,200 feet로 팔레스틴 북부에 있는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 꼭대기에 있는 눈이 증발하여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와 유다에 이슬을 준다고 합니다(박윤선). 그래서 유다에 있어서 이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곡초가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함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고 한 이유는 마치 이슬이 높은 곳이 혈몬산에서 내려 퍼지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위에서 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3절하).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영생”의 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뜻입니다(박윤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의 교회의 선함과 아름다움은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형제, 자매에게 퍼지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성(통일성)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비취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 버리라 헐어 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 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시편 137편).

2009년 5월14일,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라는 인터넷 뉴스를 보니깐 “교계인사 300여명, 한국교회 자성 촉구 비상선언”이란 제목아래 기사가 쓰여 있어서 좀 읽어 보았습니다(인터넷). <목회자의 복음적 책무와 자정(自淨)을 위한 선언>라는 제목 아래 한 8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1) 복음적 가치에 충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 (2) 교회가 분열과 대립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 (3) 목회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반성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견지할 것이다, (4) 교회가 성장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교회 간 양극화를 초래한 일은 바로잡아야 할 과제로 인식한다, (5) 세상의 학위와 명예보다 영성의 권위자가 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 (6) 개인의 경건성과 사회적으로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노력한다, (7) 복음적 바탕위에 깨끗한 교회의 정치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8)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에 힘쓸 것이다.’ 저는 이 여덟 가지 비상 선언문을 읽으

면서 참 귀한 선언문이다 생각되었습니다. 이 선언문대로만 우리 교회들이 살아간다면 교회는 교회답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는 8개 선언문들 중 제일 첫째 선언문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즉, 우리 교회가 복음적 가치에 충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첫 번째 선언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글은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종교개혁자들이 순교로써 이룩한 개혁주의의 전통을 이어갈 것을 천명한다.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병원이며,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이다. 그런데 복음의 가치보다 세속적 성공에 치중하지는 않았는지,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 윤리적 삶을 지향했는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하여 깊은 자기 성찰을 하며, 뼈아픈 회개를 통하여, 앞으로 복음적 가치에 따라 충실하게 살고자 다짐한다”(인터넷). 참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선언문 내용입니다. 특히 저는 교회는 복음적 가치보다 세속적 성공에 치중하고 있음을 회개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들(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울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37편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곳에 있으면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바벨론이 멸망시킨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왜 그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천한 데”, 즉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136:23).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곳에서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쓴 것입니다(137편).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자들이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고 명했을 때 그 명령을 거부하려고 자기의 거문고를 버드나무에 걸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3절). 그 이유는 시편 기자는 거룩한 노래를 이방인의 오락용으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박윤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억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를 오락용으로 부르기를 강압적으로 요구를 받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꼬.” 이러한 한탄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바벨론에서 포로생활 가운데 고독함을 느끼면서 바벨론 강변에

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는데 그 눈물을 저는 한 2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1) 시편 기자가 흘렸던 눈물은 회개 기도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울음은, 회개의 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성도는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통회할 것입니다(박윤선). 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생각해 볼 때 제 자신의 수요기도회 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마음에 감사와 평안함과 기쁨 등이 제 마음에 있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는 마음에 무거움과 근심과 걱정 등으로 차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들춰내셨고 죄를 자백하게 하시면서 죄와 단절된 삶을 살도록 도전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다음 날 목요일 아침 새벽기도회 후 어제 수요기도회 전에 먹다가 남았던 Kentucky Fried Chicken(KFC) 빵 한 조각을 손에 들고 기도할 때 제 눈가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기도회 때 설교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또한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특히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회개 가운데 교회에 참된 회복과 화목과 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시편 기자가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흘렸던 눈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며 흘렸던 기도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마음에는 오직 구원자가 하나님 밖에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죄를 범하므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건져주시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자신들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욘2:9)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했던 것처럼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밖에 없음을 알고 그 분께 구원을 간절히 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생각할 때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더럽고 추한 죄에서 건져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 거둔 나길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 시편 137편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찌로다.” 시편 기자는 비록 지금은 이방인 나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욱 즐거워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예루살렘을 자신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의 하나님 중심된 경건한 삶을 보여줍니다. 비록 이방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사모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마치 집을 떠난 자녀가 그의 부모님과 집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된 것처럼 시편 기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었기에 다시 예루살렘이 재건되어 전처럼 번창하길 간절히 기원하였습니다(칼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기도가 돼야 합니다. 즉, 우리는 폐허가 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재건해 주시사 초대교회 때처럼 번성하길 기원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가 그 때 만큼 교회의 전성기 언제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시대, 믿는 자들이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러한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초대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현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참된 번창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현 시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처럼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16세기 종교개혁 때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참된 종교개혁을 주님께서 일

오켜 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교회가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기에 그의 몸 된 교회 또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웨스트민스터 성경 소요리 문답 문제 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의 대답, 곧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는 그의 교회 또한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먼저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고 울어야 합니다. 교회의 죄를 범하므로 황폐한 모습을 영의 눈으로 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없이는 주님께서 교회를 건지시고 세우시는 역사의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주님의 교회를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길 원한다면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 주님의 교회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주님께서 그의 몸 된 교회를 재건하시는 것, 세우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는 거기서 극락의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시온의 노래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 즐거워하는 자의 삶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137편 7-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혈어 버리라 혈어 버리라 그 기초까지 혈어 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원수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심판, 벌)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 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7절). 물론 에돔 자손은 바벨론은 아닙니다. 오히려 에돔 자손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칠 때에 기뻐했습니다(욘10-16).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본래 형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숙적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박윤선). 여기서 에돔이나 바벨론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시137:7-9).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였고 압제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여 울었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황폐케 한 바벨론을 비유한 에돔 자손을 쳐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교회의 원수인 사단과 그의 악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기도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악인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 특히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동전은 앞뒤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즉 교회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의 백성들, 교회의 원수들을 심판(벌)하시므로 그의 백성들(교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구원과 더불어 교회의 원수의 멸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수에게 벌을 내리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생각할 때 2 가지가 생각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16장18절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과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입니다. 2003년도에 교회갱신목회자협의회(교갱협)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 교회를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그리움과 사랑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생각이 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우리 교회,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교회,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며 또한 그 고백한 대로 살어드리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이 세우시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나 자신과 세상과 죄악과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참된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고린도전서 1장 4-9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문안 인사인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절에는 고린도서라는 편지를 쓴 발신인(Writer)인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절은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Recipient)인 고린도 교회와 각처에 퍼져 있는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3절은 바울의 인사(Greetings)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2절 말씀 중심으로 과연 교회란 무엇인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1) 교회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2)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성도들)입니다, (3)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 교훈을 받은 후 저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4-9절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바울의 문안 인사인 1장 1-3절을 뒤돌아보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특히 저는 2절 말씀에서 배운 교회란 무엇인가 중심으로 1절과 3절을 연관해서 묵상해 보았을 때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은혜(Grace)와 평강(Peace)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뜻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며 또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평안을 누리길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

므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있고 또한 그러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참된 영혼의 평안을 누립니다. 어떨습니까? 과연 이러한 모습을 우리 승리공동체 안에서 보고 계십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장 4-9절을 보면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각처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2 가지로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God's grace) 때문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 2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음이 풍족한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모든 구변(speaking)과 모든 지식(knowledge)이 풍성한입니다. 여기서 “구변”이란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logos)로서 전파된 진리(the truth preached) 곧 복음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식”이란 그 전파된 진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the truth apprehended) (박윤선).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음이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음

이 풍족한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대답은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음이 풍족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그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증거에 견고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그 말씀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6-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 견고히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그 말씀에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길 기원합니다.

(2)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영혼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달음이 풍족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은사들(12-14장) 주셨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맥아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은사”들이란 영적 은사들로서 한 2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일상적인(평범한) 은사들(ordinary gifts)과 기이한 은사들(extraordinary gifts)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적 은사들인 회개와 믿음과 지식의 은사만 주신 것이 아니라 외적 은사들인 기적과 치유와 방언과 예언 등 풍성한 영적 은사들을 주셨습니다(Hodge).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음을 풍성하게 하시사 복음 전파함(영혼 구원)(Evangelism)에 힘을 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를 부족함이 없이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edifying His church)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 교회에 있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진리 깨달음을 풍족하게 하시고 모든 은사들을 부족함이 없이 내려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과 또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승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God's given hope)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장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고린도교회의 재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박윤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온다는 재림 신앙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풍족한 복음의 진리 깨달음과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여 복음 전파 사역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의 연관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 연관돼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기에 이 말세 때에 더욱더 믿음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하면 우리의 마음이 저 천국에 있지 못하고 이 땅에 있으므로 위에 것을 생각하며 그곳에 보화를 쌓아놓기보다 이 세상에 쌓아놓기에 분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

속의 땅인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세상의 것들을 그리워하고 또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믿음의 삶이요 소망의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 떠나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께 책망할 것이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다 돼야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될 것을 확신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8절). 이 얼마나 귀한 감사 기도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믿음에 서 있을 것을 확신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항상 드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귀한 감사 기도입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될 줄을 확신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대답을 저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찾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실하신(미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부르신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끝까지 견고케 하실 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시작하신 착한 일을 완성하신다는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시작한 구원의 역사는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마치실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비록 우리는 불성실하지만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처럼 저 또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풍족한 복음의 진리의 깨달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에 힘을 쓰는 우리 교회, 또한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은사들을 사용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역사에 모두 다 동참하는 모습을 보므로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영원하고 확실한 소망으로 인해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다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모두 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 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와 그의 지파들이 여호와와 그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찌어다 내가 내 형제와 봉우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찌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시편 122편).

필립 안시란 분이 쓴 책들 중 “Church: Why Bother?”(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 필립 안시는 교회 내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근본 토대, 곧 하나님의 화목케 하시는 사랑은 세상의 모든 민족, 인종, 계급, 나이, 성을 초월한다. 공동체가 먼저다. 우리를 갈라놓는 갈등과 문제는 나중이다.” 교회란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란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 일치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하나가 같아서 공동체로 뭉쳤을 때 교회란 과연 얼마나 아름다워지는가!”(안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분열이 아닌 성령의 하나 됨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122편 6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박윤선). 즉,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기를 기원하는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형

통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2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중심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에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성경 시편 122편 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와 그의 집” 즉,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자는 친구들의 초청에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에 훼파되었던 그것이 이제 중수되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오늘 본문 시편 122편 2-3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무슨 뜻입니까? 시편 기자 다윗은 훼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중수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타락했던 교회가 회개하고 아름답게 회복될 때에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박윤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아닙니까? 타락했던 교회에 참된 개혁으로 인하여 교회가 정결케 되고 새로워지는 것 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역사 가운데 더욱더 신령히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잘 준비된 깨끗한 신부와 같은 교회가 되어 갈 때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 둘째로 시편 기자가 여호와와 그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2편 4절을 보십시오: “지파들 곧 여호와와 그의 지파들이 여호와와 그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느2:18) 중수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에 기쁨으로 올라가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예루살렘 도시에 인구가 많았고(시122:3) 또한 의로운 정치가 실행

되고 있었으므로(5절) 다윗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박윤선).

이것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깨끗케 하시며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올라가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함께 하시므로 참된 부흥의 역사로 인한 교회 성장과 성경적인 바른 교회정치가 실행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므로 주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를 맛보는 자들만이 기쁨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배의 기쁨을 맛보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둘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의 평강과 형통을 구합니다.

성경 시편 122편 6-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형제와 봉우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기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루살렘을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예루살렘의 “평강과 형통”이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의 평화와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즉,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의 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평강의 복을 구하는 가운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도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축복해야 합니다. 교회를 축복하되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로서 교회의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건설하시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특징은 바로 평안입니다(박윤선). 교회 안에는 바로 영적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뿐만 아니라 교회 지체들끼리도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하시므로 형통해야 합니다.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를 보면 1-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2절)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3절)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

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흠이 없고 깨끗한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세우시는 역사를 목격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전에 기쁨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서로의 형제, 자매 관계에서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형제, 자매들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9절). 하나님의 평강의 복과 형통의 복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고린도전서 12장 25절).

과연 우리 교회는 본받을 만한 거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본 받아서는 아니 되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는 본 받아서는 아니 되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입니까?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선졸로 생각하는 자”들 때문입니다(고전 10:12). 즉, 교회가 분쟁이 있는 원인은 교만한 자들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교만한 자들은 교회의 통일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아래 교회의 다양성을 부인하므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가 주님의 한 몸임은 인정하는 듯 해보이지만 주님의 한 몸 안에 많은(여러) 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12:12).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다른 지체들과 차별화하여 스스로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다툼과 당파 짓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받아서는 아니 되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받을 만한 거울이 돼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는 많은(여러) 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다양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양한(여러)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13장) 서로 돌아보아(12:25)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1-24절 말씀 중심으로 한 3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1-22절을 보십시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에게 ‘당신은 쓸데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가끔 교회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저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라고 몇 번이고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닙니다, 권사님. 권사님은 우리 교회 꼭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권사님은 기도의 어머니로서 담임 목사인 저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손도 필요하고 머리도 필요하며 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도 다 필요합니다. 결코 약하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하던 육신이 약하던 다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라고 말하던지 ‘당신은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자다’라고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두셨습니다(18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습니다(24절). 그렇게 하신 목적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25절). 그러므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는 서로 다투고 싸우며 분쟁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 돌봐야 합니다. 서로 돌보되 우리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26절). 또한 우리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26절). 우리는 교회 안에 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지체들이나 부족한 지체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한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서로에게서 아름다움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12장 23절 하반절에서 2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보이는 지체들 혹은 내보일 수 있는 지체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좀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지체들은 좀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좀 아름답게 보이는 지체는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갖지만 좀 못 생긴 지체는 좀 부끄럽게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23절). 그렇게 하신 목적은 교회 안에 분쟁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입니다(25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체들이 아름답던 아름답지 못하던 서로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25절).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분쟁하지 않고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는 서로에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서로에게서 작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서로에게서 볼 때에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추악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받을 만한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교회의 통일성(하나됨)을 잘 지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서로 귀하게 여기며 또한 서로에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을 발하는 본이 되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이사야 60장 7절 하반절).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가 건강하면 되는 것인가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되는 것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한 교회”란 말이나 “행복한 교회”라는 말보다 “교회다운 교회”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교회가 너무나 교회답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저는 요즘 교회가 주님 중심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주님 중심된 교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 중심된 교회는 주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에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온갖 죄악 된 일들이 만연하므로 교회는 주님 중심된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7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예언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예루살렘(시온)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집인 주님의 교회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즉, 주님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내 영광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리라’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나아가고 계시며 장차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지를 한 3가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교회 위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60장 1-2절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교회 위에 나타내시사 주님의 몸 된 교회로 하여금 이 어두운 죄악 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빛을 발하게 하시되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계십니다(롬10:18). 그 결과 주님께서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과 사탄의 왕국에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계십니다(사60:3-4).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게 하시사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모으고 계십니다(시107:3). 장차 주님께서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케 하실 것입니다(22:27). 그리할 때 “여호와와 영광이 여호와와 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대하7:2). 또한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입니다(사40:5). 우리는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35:2).

둘째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60장 15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지금 주님의 교회는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버리고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가는 자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여 예루살렘이 황폐되었고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 그의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여 교회가 황폐되어가고 있으며 우리 또한 불의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므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고, 아무리 교인들이 많아보았자 무슨 소용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이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결과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판을 받고 욕을 먹으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회의 추악함이 점점 더 들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를 버리고, 목사님과 교회를 미워하며,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젠 어느 누구도 교회를 아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자신의 피

로 값 주고 사신 교회를 아끼십니다(참고: 대하36:15).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엡5:25).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마16:18). 지금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계십니다(엡5:27).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계십니다(27절).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교회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사60:15).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입니다(35:2).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요15:11, 요일1:4).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사62:4).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쁨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입니다(5절).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홀연히 변화되어(고전15:51)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고(42-49절)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 들어가(계3:12)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19:7, 9).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눅13:29). 그 때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함께 살면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시27:4).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우리는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65:4). 우리는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입니다(사35:2). 그리고 우리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습3:17) 우리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교회에게 영원한 빛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60장 19-20절을 보십시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괴롭고 죄가 많고 근심된 일과 곤고한 일과 죽을 일이 쌓인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빛나고 높은 저 곳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계22:20).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인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7:17).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21:4).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사60:19-20). 천국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습니다(계21:23).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23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에 영원한 빛이 되시기에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 충만한 영광의 빛 되신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에서(계15:2) 우리는 “여호와와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사60:6) 구원의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18절).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엡 5:25).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하시고 계십니다(26-27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완전히 세우시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영광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교회 위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교회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교회에게 영원한 빛이 되실 것입니다.

결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세우시되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십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전혀 힘씁니다. 또한 교회다운 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성찬과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견고한 기초가 있으며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는 천국 시민의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세우시되 주님께서서는 참된 교회를 마치 안디옥 교회처럼 소문난 그리스도인의 교회로 세우셔서 이웃을 구제하며 사랑케 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참된 교회에 다양한 일꾼들을 세우시며, 성령에 이끌림을 받는 교회로 세우시사 선교케 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심에 있어서 교회 안에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다 몰아내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화려함을 믿고 영적 행음함을 작은 일로 여기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저주 받는 교회를 돌이켜 복 있는 교회로 세우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범하고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책도 받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부패하고 스스로 무덤파고 있는 교회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징책을 겸손히 받게 하시사 죄를 자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서는 교회를 정결케 하시사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과 조롱을 받지 않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계십니다(엡5:27).

주님께서서는 교회에 평안함을 주시되 더 이상 다툼과 분쟁이 없는 교회로 세우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강성케 하시사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로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교회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교회에 믿음과 숫자를 증가케 하시되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가 되

시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교회를 구원을 받는 공동체로 세우시되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교회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주님께서서는 인자함으로 인도해주시며, 다시 세우시사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케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이 세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비취는 주님의 거울이 되십시다.